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2호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조계종 신도관리 체질 개선 나선다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중앙신도회와 공동관리

조계종이 답보상태인 신도 관리 체질 개선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31일 오는 12월 말 선보일 새 조계종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의 내부보고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는 2003년 10월 사찰과 신도들의 신도등록 편리성을 위해 포교원이 개발했다. 이번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2008년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 작업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신도등록 사이트는 23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년 내 교무금 납부 이력이 없는 미활동 신도 명부조회 기능과 연도별 신규 및 재발급 명단 통계 조회가 가능하단 점이다. 이와 함께 제적사찰과 전체사찰 기준 신도등록자 분류, 사찰별 신도등록 현황 등도 조회 가능하다.

그동안 신도등록 사이트는 신도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규 신도등록 사이트는 웹에 관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탑재됐으며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신도들이 보다 편하게 신도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포교원이 사찰 신도정보를 망라,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신도 확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그동안 저조한 종단 신도 등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데서 출발한다.

포교원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신도로 등록된 불자는 26만여 명 수준이지만 종단에 신도의무인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는 8만여 명 수준이다.

조계종 신규 신도 등록자는 2만여 명 수준에서 2009년 신도멤버쉽 제도 도입 당시 5만 여 명 수준으로 대폭 늘었지만 이후 지속 감소했다.

교무금 납부자수도 멤버쉽 제도 도입 이전 4~5만여명 수준에서 2009년 8만 3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후 8~9만명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매년 2만여 명에 가까운 신규 신도등록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수의 신도들이 교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무금 납부자로만 보면 서울 도심사찰 1곳의 신도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교무금 납부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직접적으로 보시금의 활용처를 체감하는 사찰과 달리 종단 교무금은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종도 정체성이 낮아지고, 사찰 측도 분담금 추산 근거 등이 될 것으로 우려,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5년 교무금 납부 사찰 1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명 미만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1073곳에 달했다. 3천명 이상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단 2곳에 불과했다.

新신도등록 사이트 12월 공개
교무금 납부 이력 통계 가능
반응형 웹, 태플릿서도 활용

중앙신도회와 협력 관계 구축
사찰 · 교구신도회 역할 부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교원은 신년초 중앙신도회와 신도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교구신도회 간담회에서는 신도 등록을 중앙신도회 및 교구신도회 등이 담당하며 대신 교무금 재원 일부를 신도회가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신도회, 더 나아가 교구신도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종단 교무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활용을 신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찰신도회가 직접적으로 뭘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능 D-7, 조금 이라도 높은 곳에' 이 눈길을 끈다.

자녀들이 수능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은 같았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11월 9일 조계사에서 열린 '수능대박! 사랑한다! 응원한다!' 기원법회서 소원지를 쓴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소원지를 달기 위해 손을 뻗는 모습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첫걸음'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7일 '2018년 등재신청 종목' 선정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1월 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종목으로 '연등회'를 선정했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로 행차해 연등을 보았다(看燈)'는 〈삼국사기〉 기록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인 것이 오늘날 연등회로 계승됐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국가 주도 연등회는 중지됐으나,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호기놀이 등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근대에 들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강연회, 음악회 등 현대적인 문화행사의 형식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렸지만, 해방과 6.25 전쟁 이후부터는 제등행렬이 다시 이뤄지며 연등회 복원이 이뤄졌다.

이후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연등법회),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 걸음 다가선 연등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2020년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종병 수급 어려움… 군종교구 홍보 '잰걸음'

첫 특기병 일괄 선발에 포스터 배포 등 홍보 박차

군포교 일선에서 활약하는 군종병이 병무청 특기병 선발로 단일화 된다. 군법사들의 자대에서의 병사 선발 과정이 없어짐에 따라 청년불자들의 입대 전 지원 여부가 군종병 확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3일 2018년도 불교군종병 모집계획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육군군종병의 경우 병무청 전문특기병 선발로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종병 선발은 병무청의 일부 특기병 선발과 자대에서 군법사들의 병사 직접 선발이 병행돼왔다.

불교군종병은 선발 정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았지만 최근 지원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2016년 1차 5명 선발에 9명이 지원했으며, 2차 5명 선발에 10명이 지원했다. 3차와 4차 또한 각각 5명과 4명 선발에 8명과 4명이 지원했다. 2017년에도 5명 선발에 10명이 지원했지만 2차 10명 선발에 8명으로 미달됐으며, 3차 10명 선발에 7명으로 미달됐다.

군종교구 측은 "현재 불교군종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감소로 우수 불교군종병 자원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군포교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독교 군종병의 경우 평균 2.5:1의 경쟁률이나 불교군종병은 관심이 저조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년에는 총 60여 명이 선발 예정으로 분기별 15명 내외가 선발된다. 군종교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종립대학을 비롯해 일선 대학 및 대불련 등에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종병 자격요건은 불교학과를 1년 이상 수료했거나, 수계 후 5년 이상 경과돼야 한다. 또는 해당사찰 주지 스님이 신행생활 추천서를 통해 증명하면 지원 가능하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⑯ 절은 절하는 곳

사찰은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오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입(寺入)이라고 말씀했다. 사입이란 단어가 사전에는 없지만 광신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을 뜻하는 듯했다. 제 정신으로 살자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가정생활을 다 팽개치고 미쳐서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님은 말씀했다.

스님은 절집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태도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 특히 절 안에서 버젓이 벌이고 있는 상행위를 못마땅해 하셨다. 길상사 경내에 구내서점을 운영해 궁한 절 살림을 개선하자는 대중의 건의도 스님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구내서점을 연다면 스님 책들도 진열될 텐데 책장사하려고 길상사를 개원한 것이 아니라며 그러셨다. 당시 어렵게 주지 소임을 보았던 C스님이 어느 날 내게 이와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물론 법정 스님의 우려처럼 스님이 책장사한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스님은 허물한 톨도 보이지 않으려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큰 절에 가보면 기념품 가게가 유행처럼 번져



일러스트 · 정윤경

있다. 절 안에까지 지폐가 위력을 발휘하는 배금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안내소나 종무소 앞에는 불단에 올릴 쌀은 얼마, 초는 얼마, 아직 짓지도 않은 전각의 대들보는 얼마, 기둥은 얼마, 서까래는 얼마, 기왓장은 얼마 하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법정 스님이 보았다면 어떠하셨을지 짐작이 간다. 아마도 혀를 끌끌 차셨을 것이다. 보시했다는 생각마저 버리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매혈기〉를 발표하여 우리에게도 친숙한 중국의 소설가인 위화(余華)가 수덕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절과 중국 절을 비교한 적이 있다.

"한국의 절은 관광객이 많지만 조용합니다. 중국 절은 돈이 많은데도 절에서 초나 향을 비싸게 팝니다. 중국의 절은 규모가 크고 스님들이 많아서 회사가 사업하는 느낌인데 한국 사찰은 다릅니다."

중국 절의 상업주의, 즉 종교장사를 비난한 말인데 그가 우리 절을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말한 것 같아 속이 뜨끔하다. 과연, 절이 종교장사나 하는 곳일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나처럼 암자를 많이 기행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암자로 가는 길〉 3권을 발간했다.

법정 스님은 D일보 인터뷰 중에 기자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묻자 〈암자로 가는 길〉이라고 추천하신 적이 있다. 우리나라 암자 400여 군데를 기행한 뒤 마음에 여운을 남긴 곳만 선정해 썼다. 암자기행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절은 절하는 곳이다' 라는 뻔한 사실이다.

절은 기복이나 단순한 굴신운동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하심의 수행, 나를 비우는 참회의 수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절을 하다 보면 온갖 잡념들은 사라지고 오롯이 절하는 본래의 나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송림사 사태' 등 입법 · 행정 개선의지 다져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 폐회

종책질의서 지적사항 쏟아져

조계종 제35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종회서 중앙종회의원들이 송림사 前주지 성폭행 의혹 등으로 드러난 입법 · 행정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종정감사 이후 11월 8일 속개한 제209회 정기회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모두 이월했지만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별 종책질의를 통해 '송림사 사태' 등 다양한 분야서 드러난 종무 미비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화림 스님은 지난여름 초심호계위원이자 송림사 주지였던 H스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종단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H스님은 사건이 불거진 뒤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 수행자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화림 스님은 "누가 봐도 문제되는 분이 종단 징계도 받지 않고 환속계를 냈다. 환속계를 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제적이 필요하다"고 총무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환속계를 제출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화림 스님은 "그렇다면 누구든지 사고치고 환속계부터 내면 징계 못하는 것 아니냐. 종회도 입법미비사항을 고쳐야하지만 종단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전 스님은 "공직에서 비위를 저지른 스님이 환속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니 종무기관에서 환속제적원을 바로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광 스님은 H스님의 재산에 대한 환수 노력도 당부했다. 스님은 "송림사 사건으로 해당 교구를 비롯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재산관계를 파악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현 스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재무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문 스님은 중앙종회 인사심의과정서 추천된 개인에게 제출받는 '범죄경력회보서'를 회람하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지적했다. 스님은 "본인 확인 외에는 제출한 사람도, 활용한 사람도 범법자라고 한다. 심지어 실

멸빈자 사면안 또다시 이월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고속도로 표지판 속 사찰명
삭제 중지 · 지침 개정 촉구도

효된 형까지 적시하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화림 스님은 "종단에 수사권이 없고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한 신원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이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에 속한다"면서도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종회의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규모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요청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찰 인건비 부담이 불법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강구 △사찰재산 처분요청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등도 당부했다.

종헌종법안은 모두 이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총무원장선거과정서 빚어진 논란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만당 스님은 종립특별선원보조금 2억5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다.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좌스님들이 종단개혁연석회의가 주최한 촛불법회에 참가해 종단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만당 스님은 "결제 중에 부화뇌동해 조계종 망하라고 외친 수좌들이 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종단은 제재 없이 예산지원을 부지런히 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종립특별선원이 수행도량으로 제대로 역할하고, 일신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반대의견을 표하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만 감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2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순 없지만 100명에 달하는 식구들이 살고 있는 종립선원이다. 예산 삭감은 반대한다"고 했으며, 제정 스님은 "우리는 선종이다. 일부 수좌 문제는 호법부에서 해결하면 된다. 종립선원 지원은 하되 결제 중 빠져나온 사람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만당 스님은 보조금에 대한 감사 시행을 전제로 해당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했다.

안국선원의 종단희사금 중단에 대해서는 오심 스님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스님은 "불교언론문화상 상금과 가로연등설치비 등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데 이것들은 불자들이 기초적으로 신심을 낼 수 있는 매개체다. 돈 좀 있다고, 종단하고 척 지었다고 이러는 건 치사한 일"이라며 "이 부분을 종무기관에서 인지하고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감한 발언이 이어지자 환풍 스님은 "지난 것은 지난대로 덮어둬야지 계속 끄집어내 난타하면 새로 출범한 집행부가 불편한 상황이 된다.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그러자 금곡 스님은 오심 스님의 발언 취소를 요청했고, 오심 스님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이어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69억5800만원 · 특별회계 558억245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제8기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 인사안을 통과시키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한 사찰명 삭제와 관련해 지침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키로 했다. 성명은 추후 의장단 윤문을 거친 뒤 최종 발표된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멸빈자사면' 종헌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단축에 대한 종헌개정안을 논의 끝에 이월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 자격요건 중 '재적승'을 삭제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 사면법 제정안도 이월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MB정부, 명진 스님 불법사찰 정황 확인

국정원 개혁위 "봉은사 주지직, 국정원 개입 연관성 없어"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명진 스님〈사진〉을 지속적으로 불법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봉은사 주지직 퇴진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 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 · 홍보수석 ·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과 비위, 발언 등 특이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사실과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으며, 원세훈 前원장은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정원 담당부서는 봉은사 사태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입장 및 대응 동향, 명진 스님의 대정부 · 대통령 비난 발언 및 개인 비위사항 등 동향을 수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 "당시 담당부서는 청와대 요청 및 원세훈 前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집부서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명진 스님의 비리 · 비위 및 특이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에 수차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리전단이 원 前원장과 청와대 지시로 인터넷 토론글에 투표하거나 댓글을 달고,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명진 스님 비판 여론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활용한 심리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주지직 퇴진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 외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국정원 존안자료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나 명진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원 前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 · 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7일 기획실장 · 대변인 정문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고 "종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주요 소임 스님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정치공작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매우 엄중한 우려와 함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오늘은 김장 삼매경 겨울을 앞둔 산사는 월동준비인 김장으로 분주하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11월 5~7일 32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스님의 손이 제법 익숙해 보인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월간 〈해인〉**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묵담대종사가 남긴 선풍과 향훈은?

묵담대종사 간행물 봉정식 및 제1회 학술대회
11월 25일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서

묵담 스님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 있어서 선 · 교 · 율을 겸비한 대종사였으며,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한 선지식이다. 또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으로,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서옹 스님은 대종사에 대해 "조년에 출가해 선과 율의 공부에 일생을 바쳤을 뿐 아니라 불사의례문에는 가히 독보적 존재라 할 만큼 귀감이 되는, 즉 이사(理事)와 내외(內外)가 겸전한 당대의 선지식"이라고 평했다. 또한 범어사 석정 스님도 "선교양종을 겸수오증하고, 불타의 청정계맥을 계승해 많은 계단서 대소승계를 전수했으며, 모든 불사에 참증하고, 많은 재식과 기도의식을 여법히 지도하는 데 엄정했으니 그때마다 서상이 나타나 사부대중이 모두 불퇴전의 대신심을 발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묵담문도회는 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을 간행하며 봉정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서 봉행된다. 묵담대종사 봉정식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묵담문도회원인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 제주 금붕사 주지 수암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을 봉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제1부 대종사의 사상편과 제2부 대종사의 소장유품 연구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사상편에는 대종사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 9편이 수록됐고, 제2부 소장유품 연구편에는 연구 논문 5편과 불서 · 외서 1,664책의 목록을 담았다.

제1부 사상편의 연구논문은 이중표 전남대 교수의 〈묵담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 교수의 〈근현대 한국불교와 묵담대종사〉,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묵담대종사의 전법〉,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묵담선풍의 구조적 특징과 그 전개 고찰〉,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묵담대종사의 율학과 행〉, 태경 스님(동국대)의 〈묵담대종사와 불복장의식〉, 안재철 제주대 교수의 〈묵담성우선사의 법명과 법호의 자전적 해석, 그리고 게송과 법어 등에 나타난 선사의 사상〉, 만춘 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의 〈묵담대종사의 예수재에 대한 연구〉, 박용진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묵담유물관 소장 범망경 및 계율 관련 불서의 현황과 의의〉가 실려 있다.


선교율을 겸비한 묵담대종사.

이어 제2부 소장유품 연구편에는 강선정 화엄사 성보박물관 학예사의 〈묵담대종사의 가사와 장삼〉, 정지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의 〈고종의 후궁 보현당 귀인정씨와 임상궁의 시주품〉, 박윤미 단국대 교수의 〈묵담유물관 소장 섬유류 유물〉,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묵담 스님과 담양 용화사 불교조각〉,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담양 용화사 불교회화의 특징과 의미〉가 실려 있다. 또한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조사해 소개한 목록으로는 〈묵담유물관 소장 근대 이전 불서〉(목판본 303책, 필사본 165책), 〈근대 이후 불서 목록(묵담대종사 필사 자료 포함)〉(977책), 〈중국 · 일본 불서 목록〉(147책), 〈외전 목록〉(72책)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14명의 연구학자가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에 실린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묵담 대종사의 법랍 75년간 오득한 법륜에 대해서 한국 대표의 불교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정성스럽게 연구 발표하게 돼 묵담대종사의 '향기 사리'를 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김주일 기자



"10.27법난 진상규명, 국가적 관심 필요"

설정 스님, 11월 8일 도종환 장관 예방 자리서 강조

"10.27법난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다음 가는 국가 권력의 인권 탄압 사건이다. 진상 규명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10.27법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사진〉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군경 10만 명을 동원해 본사와 수말사의 스님을 끌어내 보안대로 끌고 가서 승복을 벗기고 고문했다. 나 역시 수덕사 주지 시절 충남도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다"면서 "10.27법난은 국가가 민간에 저지른 잔악하고 간교하며 치졸한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난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없었다. '기록이 없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새 정부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27법난 진상 규명에도 정부가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전환 후에는 설정 스님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제 행사인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불교계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11월 7일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연등회를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종목'에 선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지현 · 사서실장 심경 · 기획실장 정문 · 문화부장 정현 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갑수 문체부 종무실장, 이상효 문체부 종무관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왔나

11월 21일 화요열린강좌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불교계서도 이에 맞춘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강좌가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11월 21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통찰의 눈으로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술들'이라는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저서 〈4차 산업혁명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임일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대(USC) 경영대학에서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러트거스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뉴저지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공저), 〈R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어느덧 동장군이 성큼 다가왔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하지만 소외계층은 더없이 힘든 계절이다. 그래도 낙담하긴 이르다. 아름다운동행이 연탄과 함께 찾아간다. 사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원들이 연탄 모형을 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모습. 사진=아름다운동행

연탄 들고 찰칵, 자비심 '물씬'

아름다운동행, 캠페인 시작… 사진콘테스트 진행

추운 겨울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이 소외계층을 다시금 찾아간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은 11월 7일 '2017년 아이연탄맨'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이연탄맨 기부캠페인은 4년째 이어지는 기부 행사로써 연탄 기부를 릴레이로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아이연탄맨 연탄기부는 사진콘테스트가 함께 진행된다. 연탄기부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아름다운동행 플러스친구나 아름다운동행 스마트폰(010-7376-9595)으로 사진을 보내면 자동 접수된다.

아이연탄맨 연탄기부 동참은 양손으로 따뜻한 연탄불을 2명에게 쏴주고, 연탄불을 받은 사람들은 ARS(060-700-0011, 한 통화 5000원, 연탄 5장 기부) 혹은 아이연탄맨 계좌(KB국민은행 023537-04-0044302)로 기부하고,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불을 쏘면 된다. 캠페인은 2월 28일까지 지속되며 12월 12일에 연탄 기부 전달이 시작된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지친 수험생, '쉼' 있는 산사로 오세요

조계종 교육원, '고3 위한 산사청춘캠프' 진행

강화 전등사 · 양양 낙산사서
11월 23 · 30일까지 각각 접수

지난 1년간 학업 스트레스로 고생했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산사 캠프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화 전등사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양양 낙산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3을 위한 산사청춘캠프(이하 산사 캠프)'를 개최한다.

산사 캠프에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청춘들을 위한 명사들의 특강이 준비돼 있다. 내비둬 콘서트 진행자 일감 스님을 비롯해 광고인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선우 시인이 고민과 세상 이야기, 문학과 사랑 등에 대해 강의하고 청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맛있는 사찰 음식과 바다 · 산 트래킹은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서해 일몰과 강화도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등사 산사 캠프는 오는 11월 23일까지, 동해 일출과 설악산을 탐방하는 낙산사 산사 캠프는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각각 50명이며, 신청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10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드는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산사 캠프를 준비했다"면서 "쉼과 자유, 행복의 인생길을 찾고자 한다면 '산사청춘캠프'를 노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02)2011-1803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운허 스님 37주기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11월 27일 오전 10시 경내 청풍루에서 '제37주기 운허 스님 기신재'를 봉행한다.



대흥사 겨울이야기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12월 2~3일 북미륵암을 오르는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대흥사 4색 4계 겨울이야기'를 개최한다.



역사 돌아보는 1일 축제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11월 18일 경내에서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사시낙락(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을 개최한다.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11월 25~26일 경주 황룡원서 '제6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여성개발원 17주년 기념식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봉행한다.

대관음사, 25주년 '찬불가'로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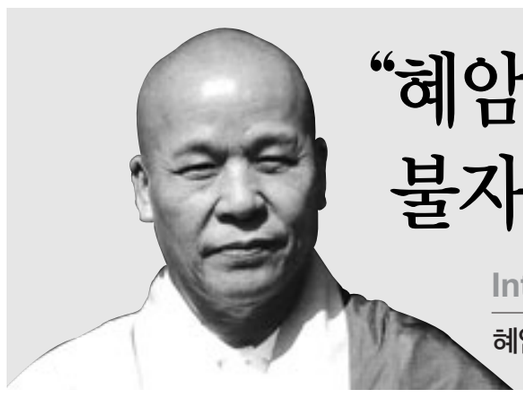
11월 3일 10여개 합창단 참여



대구 도심 최대 포교당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사찰 창건 25주년을 기념하는 찬불가 합창제를 11월 3일 대구 엑스코(컨벤션선터)5층 오디트리움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주 우학 스님은 2016년 조계종 신작 찬불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팔상성도 이야기' 등 10여 곡의 찬불가를 무대에 올렸다.

무대에 오른 10여개 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부터 청년합창단, 불교합창단 최초의 실버합창단까지 다양한 연령대별로 꾸려졌고 각 지역 도량별로도 합창단을 구성했다. 특히 지난 3월 지역불교계 최초로 창단된 한국불교대학 오케스트라 연주는 합창단의 화음과 어우러지며 행사장을 가득 매운 2천여 명의 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우학 스님은 "찬불가를 부르게 되면 법당에 활기가 넘치고 젊은 불자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불교가 현실에 맞게 되는 큰 의미에서도 찬불가의 보급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혜암 스님 구도여정 알려 불자들 신심 고취 돕겠다"

Interview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2020년 탄신 100주년 순례법회
일대기 조명 위한 출간사업 추진
"용맹정진의 삶, 후대에 알릴 것"

"혜암 스님께서는 인욕과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500생 동안 인욕 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며 인욕을 명심하라고 재차 당부하셨죠. 이 같은 스승의 정신과 업적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생전 수행처를 순례하고 평전 발간과 전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전개된다. 혜암대종사문도회는 11월 14일 남해 용문사에서 '혜암 대종사 수행처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순례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회는 앞으로 혜암 스님의 발자취가 담긴 수행처 20여 곳을 순례할 계획이다.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사진〉은 스승인 혜암 스님에 대해 "인욕 정진을 강조하고 실천 수행한 참된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에서 3년 동안 결사하고 용맹정진 하실 때 제가 공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셨지요. 그때 제가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어찌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선 '백전백승(百戰百勝)이 불여일인(不如一忍)이요, 만언만당(萬言萬當)이 불여일묵(不如一默)'이라며 '백번 싸워 백번 이겨도 한 번 참는 것보다 못하고 만 번이나 구구절절 바른말을 해도 한 번 침묵한 것보다 못하다'는 게송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1965년 혜암 스님을 처음 만난 성법 스님은 그리움으로 생각에 잠긴 듯 짧은 침묵을 반복하며 말을 이어갔다. 성법 스님은 "혜암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참된 수행자의 삶을 조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혜암대종사문도회와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스님 수행처 순례법회를 비롯해 문집정본화 사업, 〈위대한 스승, 혜암〉 및 〈평전〉 등 출간사업,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준비 중이다. 성법 스님은 "탄신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공부를 강조하신 혜암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다.

"혜암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출가하셨습니다. 평생 수좌로 공부를 하셨지요. 열반에 드실 때까지 눕지 않고 장좌불와 수행을 하셨어요. 안으로는 치열한 정진과 밖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며 정신적 지도자로 사셨습니다. 혜암 스님의 치열한 구도 여정을 알려 신심을 고취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성법 스님은 기념사업과 관련해 "혜암대종사문도회는 5년 전 혜암 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설립했다"며 "진흥회는 포교, 교육, 승가복지, 사회복지 그리고 장학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 불교 사회 활동을 펼친다. 진흥회와 함께 큰스님의 삶을 잘 정리해 후대 모든 인연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명예원로 이두 대종사 원적

법랍 66세, 세수 90세로…
11월 6일 금오문도장 봉행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청주 관음사 회주인 월암당(月庵堂) 이두(二斗) 대종사〈사진〉가 11월 4일 새벽 관음사 석수실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6세, 세수 90세. 영결식은 6일 관음사에서 금오문도장으로 봉행됐으며, 법주사 연화대서 다비가 엄수됐다.

이두 스님은 1929년 음력 12월 5일 강원도 김화군 금남면 문암리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전 가족들과 남으로 내려와 대구 관음사에서 금오 스님을 친견하고 발심출가했다. 1951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1956년 동화사 강원서 불교학을 공부한뒤 1959년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에는 전남 장성에 흙집을 지어 '능인교민원'이라 이름 짓고 6년간 학동을 가르치는 등 두타행을 실천했다.

이두 스님은 지역포교와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을 수차례 역임하면서 종교간 화합에 앞장섰으며, 충북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맡아 시민단체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특히 〈직지심체요절〉을 한글 번역하고 강의하는 등 예술계 인사들과 깊이 교류하기도 했다.

금오문중 어른으로서 1971년 갑사 주지, 1978년 법주사 주지를 지냈다. 이후 총무원 교무부장, 인천 보각선원장, 청주 관음사 주지 등을 맡았다. 2000년 금오문도회 문장으로 선출됐으며, 그해 10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2004년 5월 해인사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승려문인으로서 활동도 활발했다. 1978년 첫 시집 〈겨울 빗소리〉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창문에 울린 초음〉 〈그대가 만나는 산길〉 〈만나고 헤어지는 물가에〉 등 여러 시집과 수상집을 발간하고, 구도소설 〈명암이 없는 선하 앞에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두 스님은 열반송을 따로 전하진 않았지만 임종에 즈음한 시를 써서 제자에게 부촉했다.

인생은 한 조각의 꿈/ 그동안 살아온 삶이 세월 따라갔고/ 세월 속에 나도 따라갈 뿐이다/ 맑은 바람 밝은 달 너무도 풍족하니/ 나그네길 가볍고 즐겁구나/ 달빛 긷는 한 겨울/ 복사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철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가 퇴옹당 성철대종사의 열반 24주기 추모재를 11월 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열린 추모재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주지 향적 스님, 문도대표 원택 스님, 산중 원로스님, 하창환 합천군수를 비롯해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철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성관 스님, 동국대 경주에 1천만원



부산 전법사 회주 성관 스님이 11월 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건립기금 1천만원을 김세곤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에게 전달했다.

성관 스님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한 것을 잘 알고 있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했다"며 "절 규모가 크지 않아 더 많은 기부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용인 대원사, 약사여래불당 개원



용인 대원사(회주 송산,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는 11월 5일 '약사여래불당 개원식 및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송산 스님은 10여 년 불사 끝에 15m 높이의 약사대불을, 이어 약사여래 원불 1천불을 모신 약사여래불당 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법사 혜봉 스님(종정협 회장, 해동종 종정), 우담 스님(중앙불교조계종 종정), 혜일 스님(한국미륵불교선종 종정). 청파 스님(율사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스님(통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일 스님(한국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지광 스님(생활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선묵 혜자 스님이 직접 지은 '평화의불'을 기록한 평화시비를 제막 한 후 제막에 참여한 대중들이 한반도 평화기를 흔들고 있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사진 왼쪽 두번째)과 박정환 사단장이 부대장병들의 평화의초에 불씨를 옮겨주고 있다.


행사에 앞서 선묵 혜자 스님과 호국전진사 주지 여진 박하린 법사, 박정환 사단장, 조남진 前 국군예비역불자회장 등이 평화의불을 분등하고 있다.



법회에서 108평화순례단 단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발원하고 있다.

군포교 新 중심 '108평화순례단' 첫발 딛다

11월 5일 군종교구 108평화순례단 첫 순례… 호국 전진사서 평화의초 첫선

"이곳 장병들과 함께 불보살님의 가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평화가 이룩되고 너와 나의 가슴에 평화가 언제나 물결쳐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장병들이 힘든 병영 생활 속에 하루 법당에 와 초를 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5일 우리나라 최초 창설사단 육군 제1보병사단의 신행을 담당하는 호국 전진사에 '평화의 초'가 불을 밝혔다. 불자 군장병들과 불자들은 '평화의 불'에서 옮긴 불씨를 각자의 발원을 담아 '평화의 초'에 옮겨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5일 군포교의 새로운 중심이 될 108평화순례단의 첫 순례로 육군 제1보병사단 호국 전진사에서 첫 순례를 진행했다. 첫 순례에서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지도법사로 300여 대중들은 호국 전진사 군장병과 함께 '평화의 불'을 환히 밝혔다.

이날 첫 순례에는 박정환 제1보병사단장과 호국전진사 주지 여진 박하린 법사, 조남진 前국군예비역불자회장, 박래옥 준장 등 1사단 장병과 순례단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사단 일주문 밖에서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길게 도열한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전진사 불단에 평화의 불 안치를 지켜봤다.

'평화의 불'은 선묵 혜자 스님이 2013년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해 옮겨온 불로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상징이다.

점등식 후에는 군장병들에게 전달된 '평화의초'에 평화의 불을 나누는 행사가 이어졌다. 선묵 혜자 스님과 박정환 사단장은 각기 장병들에게 격려하며 초에 불을 옮겼다.

'평화의초'는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진 초로 외부에는 축원을 쓸수 있게 되어 있다. 군종교구는 장병들이 단순히 법회에 참여하는데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 등을 위해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평화의초' 보급을 시작하게 됐다.

1사단 호국 전진사서 순례 시작
300여 불자, 장병 평화 기원
군법당 108곳 순례하며 분등

선묵 혜자 스님은 "이 불이나 그냥 촛불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이 불은 평생을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제도한 부처님께서 탄생한 곳을 밝혀온 불"이라며 "남북한이 엄중한 상황에서 장교든 장병이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또 긴장감과 경계심이 짓누를 것이다. 이 초를 밝히며 마음을 조금이나마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장병들에게 직접 만든 호신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제대가 79일 남았다는 안성진 병장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여자친구와의 문제, 제대 후 취업 등 고민거리도 초에 썼다. 매주 오는 절이지만, 나만의 초가 있어 느낌이 새롭다"고 말했다.

손기완 일병은 "평화의초를 부처님 불단에 놓으니 마음이 편안해 졌다. 군생활 동안 매주 와 기도정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진사 군종병 이지훈 병장은 "평소 법사님과 법회에서 받은 쪽지를 기반으로 장병들의 고민 상담을 하며 장병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며 "평화의초가 장병들이 사찰로 오게 하고, 법사님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좋은 상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군관계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박정환 사단장은 "올해는 전진부대가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평화의불 봉안식이 전국 최초로 우리 부대에서 열려 기쁘다"며 "부처님 자비로 부대 안정과 평화 및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전진사 불사에 기여한 조남진 前국군예비역불자회장은 "제1보병사단은 한번도 패배한적이 없는 우리나라 국토수호의 첫 번째 부대다. 이 상승의 기운과 불자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이 함께 만나 우리나라 수호에 대한 마음이 일치단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장병들의 평화의초 봉안에 이어 108평화순례단은 평화시비 제막과 함께 평화순례 낙관 찍기 등을 이어갔다. 108평화순례단 단원인 박도수 씨는 "정말 춥고 배고팠던 옛날 군생활을 했지만, 군생활은 언제 어느때곤 고달프고 힘든 시기"라며 "특히 국가 위기상황인 지금, 군장병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순례에 참여했다. 보시한 평화의초를 받은 군장병들이 힘을 내는 것을 보니 그 힘을 다시 얻어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108평화순례단은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와 함께 매달 군법당 순례를 이어갈 계획이다.

호국전진사=노덕현 기자

평화의 불

선묵 혜자 스님

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 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진리

이 민족, 이 겨레 하나 되도록
평화통일 그날 까지 밝게 타올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비춰 주소서.

이 도량 밝게 비춘
평화의 불로
너와 나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 녹이소서.

나라 지키는 용사들 가슴 가슴에
뜨거운 평화염원 굳게 새겨서
평화와 행복, 이루기를 발원하나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산사청춘캠프

박웅현(광고기획자), 김선우(시인), 일감스님(내비둬콘서트)과 세상을 토크하자

쉼과 여유, 새로운 꿈을 위한 여행



전등사 청춘캠프
- 기 간 : 2017. 11. 30(목) ~ 12. 2(토) (2박 3일)
- 장 소 : 강화도 전등사
- 참가대상 :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생 및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생
- 참 가 비 : 3만원
- 신청기간 : 11월 15일(수) ~ 23일(목) 오후 6시까지
- 참가안내 : 11월 24일(금) (신청서 전형을 통해 개별통보)

※ 자세히 보기 : http://www.buddhism.or.kr

낙산사 청춘캠프
- 기 간 : 2017. 12. 7(목) ~ 12. 10(일) (3박 4일)
- 장 소 : 강원도 낙산사
- 참가대상 :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생 및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생
- 참 가 비 : 3만원
- 신청기간 : 11월 22일(수) ~ 30일(목) 오후 6시까지
- 참가안내 : 12월 1일(금) (신청서 전형을 통해 개별통보)

※ 자세히 보기 : http://www.buddhism.or.kr

문의 및 신청 : 전화 02-2011-1818, 1802 / 전송 02-732-4926
이메일 접수 : jin419@buddhism.or.kr / yjw@buddhism.or.kr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관 : 강화도 전등사, 강원도 낙산사

한국불교학회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4차산업
12월 2일~3일
개회식 : 중강당 10시 30분

4차산업 혁명과 인류 소통, 불교가 해답!

제2주제 | IoT(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와 불교 미래

Chapter 1 스마트시티 공동체서 불교사상 적용은?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황종성 박사는 〈스마트시티와 공동체의 지능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 발표문은 스마트시티의 등장으로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전망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진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지능의 존재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그 동안 지능은 개인의 두뇌에 위치하여 개인 개인이 각자 경험과 노력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면 이것이 지능이 되어 개인 몸에 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구현화되면 더 이상 지능은 개인 속에 존재하지 않고 사회의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황종성 박사는 스마트시티는 지능을 개개인의 능력에서 사회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도시내에서 이런 사회 지능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도시 밖으로는 도시간 지능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인식의 주체로 인식하는 불교의 교리가 사회적 지능으로 출현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hapter 2 불교 연기론과 사물간 소통 관계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박기열 교수는 〈IoT 시스템 인과율에 대한 불교논리학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기열 교수는 IoT의 기본 구조를 두 가지 이상의 개물들이 상호인과율에 따라서 연결되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과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사물이어야만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IoT에 있어 사물은 자신을 대표하는 식별자와 다른 것을 인지하는 센스를 본질적 특성으로 가져야 한다.

박기열 교수는 이와 같은 사물들 간의 소통에 대해서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특히 불교 논리학적 관점에서 (1) IoT의 작동에 있어서 인과의 차제성과 동시성에 관한 해석, (2) IoT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될 때 선형적 단일방향의 인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고정된 원인의 값이 고정된 결과의 값을 산출하는 문제, (3) IoT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상호인과율이 타당하지 않게 적용되는 패턴, (4) 불교 경제학적 관점에서 Iot의 가치적 효용성의 문제라는 문제를 집중 고찰한다.

Chapter 3 4차산업 시대 사찰건축의 방향은?

동명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과의 장재진 교수는 〈불교건축과 4차산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찰건축의 미래상을 고찰한다.

장재진 교수는 우선 전통사찰의 유형과 역할을 살펴보고 사찰건축의 발생과 배경을 되짚어 본 후 현실공간으로서의 사찰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한다.

장재진 교수는 새로운 시대의 사찰이 IoT 기반의 스마트농업 활용공간으로 저비용, 친환경, 유기농, 모듈로 농장의 기능을 함의한 자급자족형 저장 및 유통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스마트 시티와 연계하는 다양한 기능이 부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찰이란 생체 모방형 로봇 및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교육, 의료 힐링의 공간으로서 기능이 확장될 것이고, 아울러 산업혁명에 따른 잠재적 위험의 해소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기획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문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聖現(Hierophany)적인 기능이 담긴 공간으로서의 사찰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4차산업 지상세미나

① 인공지능 · 로봇 기술과 불교
② IOT · 스마트시티와 불교의 미래 4차산업 시대, 불교 포교
③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포교 VR/AR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④ 특별대담 '4차 산업 시대 속 불교'
⑤ 국제학술세미나 현장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성운)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동국대 중강당, 만해관과 다향관에서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Iot 및 스마트시티 기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 등 4차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불교사상적 접근이 시도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50여 석학이 참여하는 대형 세미나로 마련된다.

이에 앞서 지상세미나 및 대담을 통해 주요학자들의 발표를 미리 맛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기서 잠깐!

사물인터넷 · 스마트 시티는?

센서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 사물, 그리고 이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제3주제 | 4차산업 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Chapter 1 AI와 인간 소통, 불교적 관점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안환기 교수는 〈AI와 인간의 마음, 불교교학적 해석과 심층적 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현대는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인 AI가 부각되고 있다. AI가 탑재된 무인자동차가 소개되고, AI를 사용한 진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환기 교수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AI를 만들었지만 AI로 인해 편리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겪는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 AI는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AI를 사용하는 인간과 AI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립해야 할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을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식학의 관점이 인간과 소통하고 있는 대상을 마음이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음의 작용을 언어의 문제로 소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AI와 마음의 관계를 불교의 심층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Chapter 2 인공지능의 식(識)의 작용은?

서울과학기술대 이진경 교수는 〈유식학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인공지능은 그 방향이나 개념 자체를 다르게 하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초기 인공지능을 주도했던 계산주의 모델로서, 감각의 영역에 속하는 5식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의식의 능력인 추론, 범주적 판단, 일반화 등을 주로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연결주의 모델로서 다양한 경험적 입력자료를 사용하며, 자료를 읽어내는 센서의 발달, 그리고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빅데이터, 그리고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경험주의적 모델이다. 연결주의 모델은 초기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강력한 계산능력과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알고리즘 덕분에 인공지능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연결주의 유형의 인공지능은 계산주의에 비해 식의 사용에 균형이 잡혀있다. 여기서 이진경 교수는 인공지능에게서 의식, 말라식, 알라야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룰수 있을지, 그것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등을 세세히 검토한다.

Chapter 3 4차 산업시대 인간 감각 확장과 불교의 '根'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의 류현정 박사는 〈유정과 무정의 간극에 대해-감각의 확장에 대한 불교적 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이 과학의 영역에서 자연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자 매개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근(根, indriya)은 유정(有情)이 지닌 생래적인 감각기관으로서, 인식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욕망기관, 나아가 수행도의 원동력이 되는 기체로서 그 역할이 확장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류현정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속에서 감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불교의 근과 관련지어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감각의 차원에 있어 유정과 무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현 시대에 유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유정과 무정의 간극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사찰음식 :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기 위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
계절식재료를 사용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및 강의

운영시간 | 화~일요일 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2층
전화번호 | 02-733-4650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www.koreatemplefood.com

"불교 부흥 해답, 재가공동체 복원"

빠리사학교 개척강사 2기 학인 모집

11월 17일부터 매주 숲 개최
부처님 당시 '빠리사' 형성 목적
20명 모집, 각 분야 전법 개척


김재영 법사


제1기 빠리사학교 개척강사 양성과정 선포식.

부처님 재세시 인도사회에서는 상류 귀족과 지식인, 상인과 기업가들로 구성된 재가불자 수행공동체인 '빠리사'(Parisa)가 존재했다. 빠리사는 선구적인 수행 공동체로 풍요로운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사나 가람을 기증하고 승단을 외호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자들의 수행도 지원했다. 이들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隊商)을 조직해 세계 각국에 불법을 전파하기도 했다. 빠리사는 재가불자이자 또 다른 수행자로 불교 전법에 큰 역할을 했다.

불자 인구 300만 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빠리사'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 시대의 '빠리사'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빠리사 학교가 11월 17일부터 32주간 여는 빠리사학교 개척강사 2기 강좌가 그 것이다. 빠리사 학교에서 배출하고자 하는 개척강사는 부처님 재세시 각 나라에 전법을 한 재가불자들의 현대적 적용이다. 20명 내외의 재가 학인들이 함께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을 공부하며, 수행과 함께 설법과 강연 등에도 나선다.

빠리사 학교는 2015년 1기 개척강사로 19명을 배출 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 전법에 앞장서고 있다.

1기 지도를 맡았던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가 이번 2기 지도도 맡는다. 출가 중심주의를 비판해 온 김재영 법사는 그동안 빠리사 운동을 통한 재가불자 양성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번 2기는 김 법사의 출재가를 막론한 공동체 복원을 다룬 〈화엄코리아〉 출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강좌 또한 〈화엄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첫 16주는 기초과정이, 나머지 16주에는 중급과정이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불교핵심 총정리(사성제, 팔정도, 유식 등) △부처님생애 10부작 영상 △관찰과 토론 △사띠실수 △설법실수(說法實修)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급과정은 경전 · 수행 심화교과를 다루며 설법 · 강의기법과 설법실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빠리사학교 개척강사 2기 강좌를 앞두고 김재영 법사는 재가 운동의 복원이란 화두를 제시했다.

김재영 법사는 "재가 지도자를 개척불교의 역군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불교가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부흥을 위해서는 붓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입각해야 한다. 개척불교와 대빠리사운동을 위해 개척 강사와 개척 법사를 많이 배출코자 한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이어 "대빠리사운동은 고정관념을 갈아엎고 붓다가 실천한 본래불교, '붓다의 불교'를 오늘 이 땅에 새롭게 살려내기 위해 변화하고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며 "빠리사는 둘러(pari)앉다(sa)는 뜻으로 관찰하고 토론하는 수행공동체를 3명, 5명, 10명, 수십명, 지역단위 등으로 수천, 수 만개의 빠리사를 만들어 불교 중흥과 만인견성 · 만인해탈을 이룩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수행정진교육과 개척강사 · 개척법사 양성해 변화 · 개척과 전법을 동력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끝으로 "출재가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불교발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때 불교는 비로소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 회비는 5만원으로 선착순 20명까지 받는다. 등록마감은 11월 15일이다. (010)8702-4150 노덕현 · 박진형 기자

가족창업, 서울형 MC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⑦ 서울 송파구 '찬들애' 함길자 대표



창업과 경영에서 인건비 과지출, 직원간의 불화 등의 문제가 부쩍 늘었다. 창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부담 되자 경제적 · 심적 안정을 책임지는 '가족 창업 ·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이는 형제 · 자매 ·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창업을 하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절감 및 심적 안정 등의 장점이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찬들애를 운영하는 함길자(65) 씨는 이 가족창업을 성공적으로 일궜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창업의 시작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래딧(서울형 MC)'이 있었다.

함길자씨는 1995년 IMF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일본으로 이주해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로 일본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한국서 남편은 청소 대행업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 반찬가게 운영을 시작했다. 장기간 해외 거주로 국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제약이 많고 가능 한도가 적었다. 이때 신용보증재단서 서울형 MC를 알려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때 서울형 MC가 큰 도움이 됐어요. 대출할 수 있는 금액도 높았고, 다른 곳은 딱딱하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함 씨는 서울형 MC를 통해 1500만원의 경영개선자금을 무담보 · 저금리로 대출받았다. 이 돈은 냉장고 및 냉동고를 구입하고 메뉴를 추가 하는데 사용됐다. 기존 운영 당시 중고 집기류를 구비하였기에 잦은 고장이 나는 등 환경이 열악했는데 창업지원으로 위생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 것이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현재 함 씨 자매는 월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에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서요. 앞으로 매출을 연 3천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도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거나 현실적 벽에 부딪혀 진행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남의 집서 일하고 월급 받으며 사는 것 보다는 작더라도 내 사업체를 갖는 게 더 좋죠. 만약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고요. 서로 의지도 되고, 일단 여기가 내 집이잖아요. 서울형 MC가 우리 세 자매 모두에게 행복한 웃음을 찾아주고, 우애를 더 돈독히 만들어줬어요." 박진형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불교상담개발원, 스스로 떠난 이 위한 위로 법회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성림사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가 자살자 유가족 위로 및 영가 천도를 위한 위령재를 개최한다. 11월 25일 서울 성림사에서 열리는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인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인의 자살로 인해 상실을 경험한 이들의 치유를 위해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법사로 나서 자살영가를 위로하는 법문과 함께 등공양 의식, 공감나누기 등의 종교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위령재에는 자살 유가족이나 자살시도자, 자살 위험군,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abi737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황금빛 불교유산 위 한국장애인 불심 심다

보리수아래 장애시인들의 미얀마불교문화순례 성료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발간사업의 첫 번째인 미얀마시인과 한국시인의 공동시집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 발간사업 일환으로 10월 30부터 11월 3일까지, 3박 5일간 장애인, 스님, 자원봉사자 등 18명이 참가한 미얀마 불교문화순례를 마쳤다.

불자장애인들은 첫날 첫 일정으로 양곤 시내에 위치한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공동시집 원고료 및 후원금을 전달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불자장애인들은 양곤 외곽에 위치한 미얀마보장구 제작공장 삐존치두레뚜 니삔야 세윤을 방문하였다.

이 공장은 절단장애인을 위한 의수, 의족과 목발 등을 제작하고 수입보장구 맞춤지원을 비롯한 보장구 수리 사업을 하고 있다. 20여명의 직원 중에 3명의 절단장애인도 근무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국영 보장구 공장이 7곳 정도 있으며 민간이나 NGO,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장도 늘고 있다.

불자장애인들은 이어 미얀마 상징 불발을 모신 쉐다곤 파고다, 양곤에 있는 황금대탑 쉐다곤파고다와 4개의 좌불상으로 이루어진 사면불상인 짜익푼파고다, 일천 여명의 수도승들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짜가와이수도원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성역화 위한 3천배 용맹정진

조계사 불교대학, 11월 4일 개최...800명 동참

조계사 불교대학은 11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 원만 성취를 위한 3,000배 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에는 주지 지현 스님과 대중스님들을 비롯 8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3,000배 용맹정진은 저녁 7시에 시작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3,000배 철야 용맹정진은 조계사 성역화 불사 원만성취의 발원을 담았다. 불교대학 학생들은 3,000배 용맹정진 기도를 집전했다. 불교대학 총동문회, 불교대학 59학번, 불교대학 1학년과 2학년 학생, 불교대학 학생회 등 불교대학 학생들이 직접 죽비를 치고, 북을 울리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3,000배를 이끌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절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수행방법"이라며 "이번 3,000배 용맹정진은 성역화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기도와 발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 나를 위한 3,000배를 넘어 조계사와 한국불교를 위한 3,000배 용맹정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我! 休! 토닥임"

제6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我! 休! 토닥임"라는 주제로
제6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일정

18일(토) ~ 1일차	
13:00 ~ 14:00	환영의 시간
14:00 ~ 14:30	입 재 식
14:30 ~ 16:10	[강의①] 명사 특강 - 월호스님
16:10 ~ 16:30	휴식
16:30 ~ 18:00	[강의②] 찬불가로 채우는 마음 양식
18:00 ~ 19:00	저녁공양 / 지도자 커뮤니케이션
19:00 ~ 19:30	저녁 예불
19:30 ~ 21:30	[강의③] 나를 위한 미술 힐링 토닥토닥
21:30 ~ 22:00	조별 시간

19일(토) ~ 2일차	
06:00 ~ 07:00	아침예불
07:00 ~ 08:30	아침공양
08:30 ~ 09:50	[강의④] 찬불 율동과 함께하는 해피타임
09:50 ~ 10:00	휴식
10:00 ~ 12:00	[강의⑤]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휴심시간(마음이 쉬는 시간)
12:00 ~ 12:30	회향식

일 시 : 2017년 11월 18일(토) 오후 1시 ~ 19일(일) 오후 12시 30분 (1박 2일)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
대 상 : 계층법회 및 불교학교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참가비 : 6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7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접수방법 : 선착순 100명
■ 사전접수 마감 :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6시까지
■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 다음까페에서 안내문 다운,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다음까페 http://cafe.daum.net/burec
· E-mail. burec@daum.net / Fax. 02-738-7863
·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플러스친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검색, 친구추가
· 전화 접수 가능 ☎ 02-738-7860
준비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세면도구, 긴팔 옷 등
문 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레이션협회

2017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 종교예식

제3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고통 속에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는 법회

일 시	11월 25일(토) 14:00 ~ 16:00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성림사(마포구 성산동)
법 주	광용스님(성림사 회주)
내 용	영가 위로 법문, 축원 기도, 등(燈) 공양 의식
참가대상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 가 비	무료
접수및문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기도와 축원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간절한 佛心, 절벽에 불국토를 새겨넣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⑳ 맥적산 석굴

실크로드 선상의 천수(天水, 텐수이). 중국 고대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삼황오제의 하나인 복희씨(伏羲氏)의 고향. 진시황의 조상이 살았다는 지역. 거기가 천수이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출발하면 이곳에서 첫날밤을 보내야 한다. 인도로 구법여행 가던 현장법사도 대장정의 첫 여장을 이곳에서 풀었다. 국외 출국금지령 무시하고 오로지 구도(求道) 행장을 꾸렸던 현장, 그의 첫 여정이 이곳 천수였다니, 감회 새롭다.

천수시에서 동남쪽으로 60km 가면 보리짚단을 쌓아놓은 듯한 바위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다. 그래서 맥적산(麥積山)이라 부른다. 그렇고 그런 산 능선을 아래로 깔고 특이한 바위산 하나가 우뚝 솟았다. 신비로움의 현장이다. 숲이 우거져 있고 경치 또한 수려하여 가끔씩 구름이 와서 노닌다. 이런 신비의 장소를 그냥 놔둘 리 없다. 그래서 옛사람은 맥적산을 불교성지로 만들었다. 절벽에 석굴을 뚫고 사원을 경영한 것이다. 바로 맥적산 석굴이다. 돈황, 용문, 운강 석굴과 더불어 중국 4대 석굴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맥적산 정상은 거의 삼각형 형태의 바위산이다. 뽀족한 정상은 하얀 탑 하나로 성지(聖地)임을 알리고 있고, 푸른 나무들은 모자를 씌우고 있다. 녹음 짙은 나무들 덕분에 바위 색은 더욱 짙어 무겁게 보인다. 홍사암(紅砂巖)의 산은 거의 수직 절벽이다. 단애(斷崖), 이런 절벽에 어떻게 석굴팔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신비로운 성소로 보인다 해도, 막상 절벽에 매달려 굴을 파고 불상 조성하는 일은 고역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거대한 바위산을 불교 석굴사원으로 만들게 했을까. 신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답변할 수 있을까. 상상 밖의 일이다. 맥적산을 가까이 가 본다. 정문에 서면 우선 하단부분의 거대한 삼존불이 시선을 장악한다. 제13호 석굴로 수문제(文帝)가 조성한 것, 높이 15.7m의 규모이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삼존상이다. 대규모여서 그런지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특히 본존상의 표정이 밝지 않아 안타깝게 하지만, 맥적산의 상징과 같은 도상이다.

거대한 불상은 절벽을 새롭게 보게 한다. 대불 주위로 지그재그의 계단식 통로가 마치 현대의 설치미술과 같다. 절벽을 사각형 구멍으로 뚫어 각목을 넣고 만든 길, 그런 길을 잔도(棧道)라 부른다. 절벽에 나무를 나란히 박고 그 위에 널판을 깔아 만든 길이다. 지금도 곳곳에 잔도의 각목을 박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맥적산 석굴은 높이 142m 절벽에 석굴과 불감(佛龕) 194군데를 조성했다. 소상(塑像) 3,513기 등 7,200기의 불상이 있다. 석굴은 오호십육국의 하나인 요진(4세기)시대부터 파기 시작하여 수당시대 그리고 송대에 이르기까지 조성했다. 이들 작품은 중국 조소역사에서 좋은 표본으로 꼽히고 있다.

제80호의 경우, 북위시대 작품인 왼쪽 협시보살입상의 늘씬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왼손에 정병을 들고, 오른손은 가슴 부분에서 인동초(忍冬草)를 들고 있다. 은은한 미소와 온화한 표정이 일품이다. 늘씬한 신체 표현은 제121호의 비구상과 비구니상을 들 수 있다. 제142호는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교각보살상은 미륵불로 몸의 장식이 화려하다. 당당한 자세와 운동감 있는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제3호 석굴은 구획된 공간에 열을 맞추어 37미터 길이에 4단 구조로 천불을 조성했다. 장관이다. 비슷한 불두와 자세의 나열이다. 맥적산은 석각 이외 벽화도 많이 제작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파괴되어 900㎡ 정도만 남아 있다. 그림 내용은 불상, 비천, 공양자상 등 다양하다.

맥적산 석굴은 돈황, 용문, 운강석굴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다. 하지만 수직 절벽에 석굴을 뚫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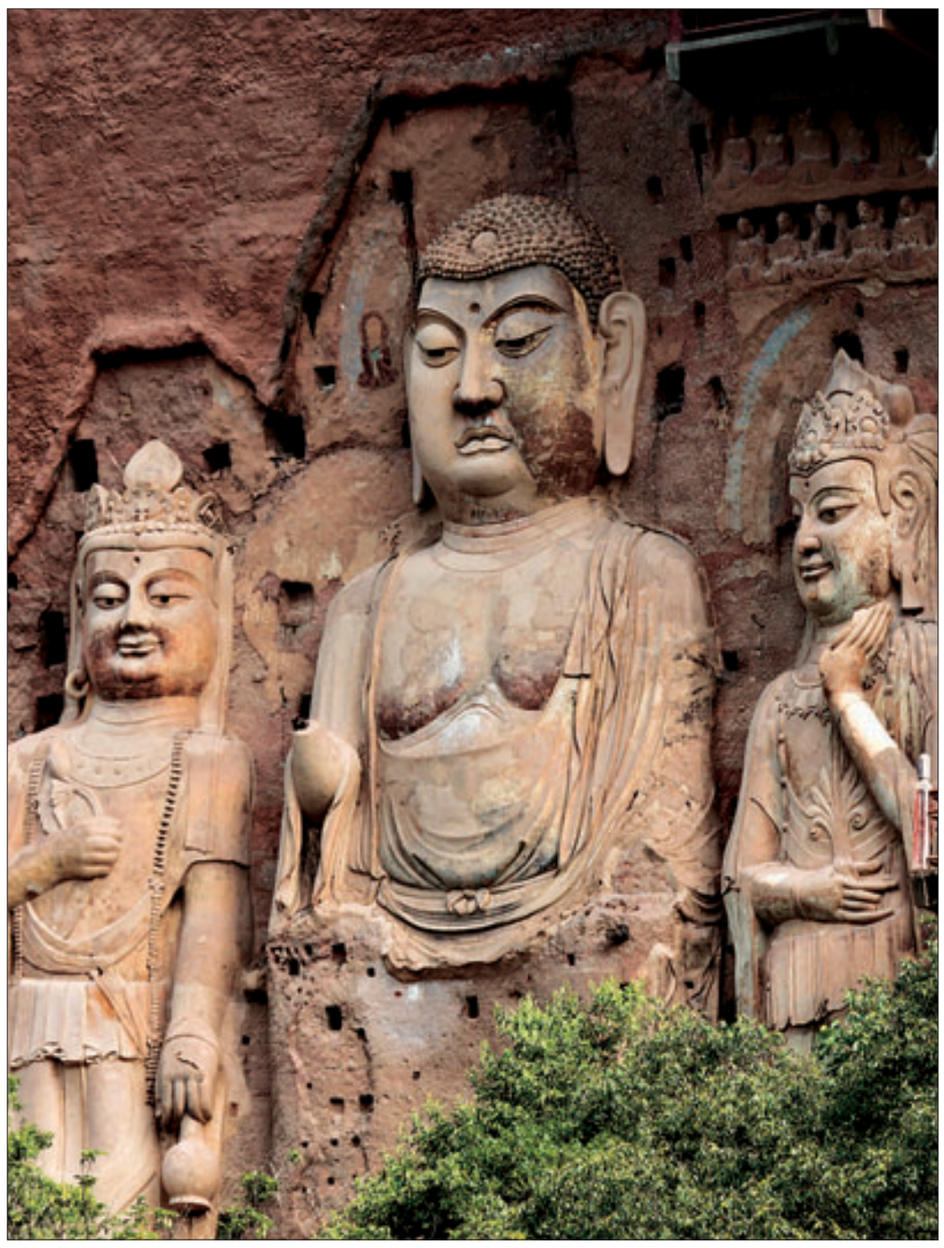
실크로드 길목 天水에 자리한
수직 바위 절벽의 맥적산 석굴
수 문제 조성 15m 大佛 '눈길'
이젠 관광지 된 성지 안타까움

불상을 조성했기 때문에 난공사의 고통을 생각하게 한다. 절벽에 매달려 공사를 해야 했으니, 나무 꼭대기에 제비집 짓는 것과 얼마나 달랐을까. 신앙생활의 일환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석굴사원. 이를 오늘의 관광객은 단순 구경거리로 계단을 오르내린다.

비록 가쁜 숨을 몰아내 쉬게도 하지만, 또 절벽 아래의 경치가 아찔하게도 하지만, 등산객처럼 인파에 휩싸인다. 게다가 석굴 내부에 향화(香火)가 꺼진지도 오래되어 퇴락의 분위기가 안쓰럽게 한다. 단순 관광자원으로 격하된 사원, 안타까움의 현장이다. 그건 그렇고 맥적산 석굴은 절벽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재미가 별로 없다. 불경스런 표현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4대 석굴사원 가운데 특히 그렇다. 아무리 실크로드의 길목이라 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천성의 대족(大足, 따주)석굴을 그리워한다. 북쪽에 돈황이 있다면, 남쪽에 대족이 있다는, 바로 그 대족 말이다. 경이로움의 현장이다.

대족석굴은 사천성 중경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보정산, 북산, 남산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조각을 남겼다. 70여 군데에 6만 건 이상을 조성했다. 북산은 벌집 형태로 길이 400m로 만당(晩唐)시대인 892년부터 개착하여 남송시대까지 250년 동안 조성했다.



맥적산 석굴 제13호굴의 대불. 15m의 크기로 맥적산 석굴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공작명왕경〉 석굴은 '석조 궁궐'로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보현보살상은 중국의 비너스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보정산 석굴은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 대족석굴은 무엇보다 '예쁘다'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게 한다. 중국 그 어느 석굴보다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 그리고 표현형식의 거리낌 없는 기량은 대족의 명성을 높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조각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탁월한 상상력과 그것의 표현기량은 가히 세계적이다. 정말 대족은 대만족으로서의 대족이다.

보정산 석굴이 순례자를 놀라게 하는 것은 조지봉(趙智鳳)이란 인물 때문이다. 조지봉은 남송시대 밀종(密宗)대사로 조각승이기도 했다. 그는 70년(1179-1249)동안 석굴 조성에 매진했다. 보정산 석굴은 상상력의 승리라고 칭송할 수 있는 곳이다.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 그리고 불교세계의 역시 다양한 모습들, 놀라울 정도로 다채롭고 또 표현형식의 자유자재를 주목하게 한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육도윤회상, 열반상, 지옥장면 등 스토리텔링의 현장이다. 이렇듯 다양한 이야기의 현장은 대족의 특색이다. 그것도 불교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유불선을 보듬어 안고 있고, 참배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각각 감동을 안게끔 설계되어 있다. 대족석굴은 바위를 파 그림을 새겨 넣은 것 같다. 그만큼 조형성이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미술사적 조형성의 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모범생처럼 규격 안에서 경직된 병령사 석굴이나 맥적산석굴과 비교하면 특히 그렇다. 조지봉은 수도승이라기보다 예술가 같다. 그만큼 대족석굴은 예술성이 뛰어나다. 감동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조지봉 스님 개인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나는 예전에 북구여행을 하면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간 적 있다. 오슬로에는 상징과 같은 비겔란 조각공원이 있다. 구스타프 비겔란(1869~1943), 그는 평생 조각공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간의 본질문제를 주제로 삼아 갖가지의 인물상을 조각했다. 청동, 대리석, 화강암 등의 재료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다. 그것의 집성은 비겔란조각공원의 석상 등 200여점이다.

공원 중앙에 높이 17m의 270톤 규모의 화강암 석상이 서있다. 121개 조각으로, 36개 군상을 집약한 작품이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거대한 기둥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 비겔란 조각의 압권이다. 평생 작업, 이런 표현은 소중하다. 집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족 석굴이나 비겔란조각공원에서 나는 평생 집념의 작품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강 건너의 그 무엇이다. 그래서 대족이나 비겔란 앞에서 감탄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입장이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맥적산 석굴 중 하나. 맥적산에는 높이 142m 절벽에 석굴과 불감 194군데를 조성했다. 소상(塑像) 3,513기 등 7,200기의 불상이 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충북종무원장 석초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단연합회회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대원불교조계종 불 교 대
, 강
수년간 명 , 성 명 을 우 도 직
통 이 지 분은 실 하 지도함
010-3711-5072
교 원 장 : 석유심 합장
총본산 주 : // . . / 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형언어’로 한국 마애불 조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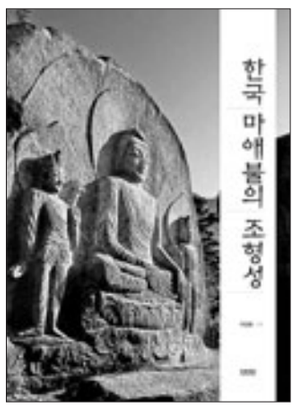
주목! 학술서

이성도 교수의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

암벽에 새긴 불상, 마애불(磨崖佛)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기까지 인도 · 중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불상이다. 한국의 마애불은 7세기를 전후해 충청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마애불은 국보로 지정된 것이 30여 점에 이를 정도로 한국 불교미술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조성됐던 마애불을 이성도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조금은 색다른 시각으로 읽어낸다.

이 교수는 최근 발간한 연구서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에서 기존의 양식사적 구분이 아닌 조형언어로 시대 의식을 찾아내고 있다. 기실, 한국미술사의 기술방식은 양식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수의 연구서는 오랫동안 조각가인 저자가 제작적 경험과 조형적 시각을 빌려 전통적인 석불인 마애불을 분석하고 기술해 눈길을 끈다. 기존의 미술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조형적 특성인 조형성을 표현적 특성을 재료와 기법 그리고 여러 조형요소인 선과 리듬, 형태, 비례, 매스와 볼륨 그리고 표정 등의 분석을 통하여 조형성과 조형의식을 탐구하고 있다.



마애불 시대별 조형의식 분석

양식사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

한국 마애불, 단순화를 지향해

자연주의 미학 확연히 두드러져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은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미술사에 있어서 불교 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독특한 형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개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론 1편에서 4편까지는 우리나라 마애불의 조형성에 대해서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4개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 5편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 우리나라 마애불에 나타나고 있는 미의식에 대한 연구다. 또한, 부록인 ‘불상조각의 이해’만으로 불상조각의 개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 교수가 읽어내는 한국 마애불의 미의식은 무엇일까. 그는 ‘자유주의’가 한국 마애불을 관통하는 미학이자 미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불상은 숭고하며 장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마애불은 장식적 요소가 강조되지 않고 단순화와 자연스러움이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마애불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이상적인 불상 조성과 한국 전통미술에서 추구된 미의식인 자연주의가 공존한다”면서 “우리 마애불에는 토속적인 민속신앙과 습합된 미의식, 바위에 대한 믿음의 미의식 등 자연주의 미학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마애불은 자연주의 미학과 절제되고 함축적인 표현 속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부처를 추구했다”면서 “이는 마애불에서만 보이는 미의식이나 조형의식이 아니라 한국미술의 보편적 미의식과 조형의식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주의 미학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평론 학술상 윤창화 대표 선정

오는 12월 21일 시상식



불교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의 올해 학술상 수상자로 재야학자이자 불교 출판인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은 “올해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윤 대표의 저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이 선정됐다”고 11월 6일 밝혔다.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은 선종의 여러 청규와 선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각종 제도, 가람 구성, 생활철학, 사상 등을 탐구한 수작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윤 대표는 “졸저는 당송시대 오도(悟道)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선원을 비추어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그 의도가 어느 만큼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는 동안 행복했다”면서 “사색은 아름답다. 탐구는 아름답다.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 때문이다. 방일하지 말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선수행 통한 非相, 강한 종교교육”

안호영 교수, 3일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서

뇌과학 · 禪 접점, 비판적 고찰



뇌과학으로는 상(相)과 비상(非相)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며, 강한 종교교육은 선수행으로 가능한 비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사진〉는 11월 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발표 논문 ‘종교, 교육은 가능한가- 뇌과학과 선불교를 중심으로’에서 뇌과학과 선불교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안 교수는 뇌과학과 선불교가 문제를 인식하는 시작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불교는 근본을 묻는 것인 반면, 뇌과학은 원인을 탐구한다”면서 “선불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 물음을 제기하지만, 뇌과학은 ‘인간의 존재’를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해 오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相)’에 대한 문제이다. 명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속박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지만, 신비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안 교수는 “뇌과학이 만든 상으로는 종교적 반성에 이를 수 없다. 종교적 반성은 비상(非相)의 체험이기 때문”이라며 “비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뇌과학과 무관하며 상으로는 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상과 비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근원없는 무한퇴행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닫힌 사회’와 정적 종교에 젖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과학으로는 상과 비상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함’을 분명히 한 안 교수는 뇌과학을 통한 종교교육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뇌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월적 종교 경험은 상에 의지한 약한 종교교육이며, 선수행으로 가능한 비상은 강한 종교교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날 대회에서는 △김경이 · 우정원(가톨릭대)의 ‘가톨릭 종교교육을 위한 뇌기반 학습과학 연구 동향 고찰’ △정혜정(원광대)의 ‘뇌과학과 동학의 마음교육’ △류현민(선문대)의 ‘신념 및 신앙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런던 한복판서 만나는 석굴암 부처님

런던 한복판서 석굴암 부처님을 비롯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11월 동안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상영을 시작한 문화재청의 홍보 영상물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방송되며 1일 48회(총 1,440회)씩 상영된다. 총 1분 길이의 영상물로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분야 중 12개 유산인 석굴암 불국사, 백제역사유적지구,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종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창덕궁, 조선왕조실록, 조선왕릉,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등을 소개한다. 신성민 기자

성철 스님과 현대 한국불교를 논하다

백련불교문화재단, 11월 17일 학술대회

봉암사 결사 70주년과 해인총림 5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과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퇴옹 성철과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봉암사 결사 70주년과 해인총림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성철 스님의 생애를 되짚고, 현대 한국불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이종수(순천대 사학과)의 ‘봉암사 결사의 배경과 불교사적 의미’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대적 의의- 퇴옹성철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서재영(불광연구원)의 ‘근현대불교에서 퇴옹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퇴옹성철의 선문헌 번역사업의 내용과 의의’ △최원섭(동국대)의 ‘퇴옹성철의 대중포교 내용과 불교사적 의의’ △변희욱(서울대 철학사상연구원)의 ‘성철의 교외별전- 성철의 거짓말에 속아야 할까, 속지 말아야 할까’가 각각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이사장 원택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성철 스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스님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봉화 청량산 암자터 복원 정비 추진된다

6일 지표조사 보고회 개최

경북 봉화군 청량산 암자터가 복원 · 정비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조준한)는 11월 6일 봉화농경문화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청량산 암자터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실무를 맡고 있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이현수 팀장의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청량산 암자터에 대한 향후 조사와 정비방안, 단계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날 관련 전문가들은 “청량사 암자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문화를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나 등산로 상에 위치한 대다수의 암자터가 훼손 우려가 높아 향후 추가 학술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음에 이르는 길

승려는 많으나 구도자는 줄고 있다. 구도자는 있으나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불교계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는 해마다 결제 철이 되면 100여 개의 선원에 200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정진하고 있다.

일생을 오롯이 한길로 매진해온 수행승들도 수두룩하다. 무문관 선원이 날로 늘고 있고 결제와 해제에 상관없이 용맹 정진하는 구도자들이 불교의 밝은 미래의 희망이 되고 있다.

말이 쉽지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시간을 잊는 간절심의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100여 곳의 넘는 선원에서 정진하는 2000여 명의 스님 중 깨달음을 이룬 선지식 소식은 쉽게 들려오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깨달음을 이룬 뒤 숨어버리는 은둔자가 있을는지 모를 일이나 깨달음의 생명력은 중생교화로 모아져야 아름다운 회향이 되는 것이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참사람을 의미한다. 버리고 비우며 나눔을 생활화 하는 평화로운 사람. 행복과 자유의 참주인공이 참사람이요 선지식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지식은 명예와 재색(財色)으로 윤회하지 않는다.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인으로 누구에게나 빛이 되고 이웃이 되는 참사람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편안한 것이다. 다툼과 경쟁이 없는 평화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중생 곁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자의 손을 잡아 중심을 잡게 하고 헐떡일 때는 헐떡이는 자의 벗이 되고 이웃이 되어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의 진정한 의미의 안내자가 되어야한다.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인으로 선지식은 선지식다워야 참다운 선지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만들어지는 선지식이 늘고 있다. 세월이 흐르다보면 선원의 안거(安居)경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대접 받는 문화가 그 둘레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가 선원장까지 겸직하는 풍토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림자이다. 거기다가 화두(話頭)가 전형화 되어 틀에 박힌 정진 형태에 년륜(年輪)만 쌓여가는 병 아닌 병을 앓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화두는 당송(唐宋)시대에 만들어진 화두가 아니라 개개인의 주어진 현실의 의심덩어리가 참 화두인 것이다.

육조(六祖) 혜능은 더벅머리 총각의 행자시절에 선지식으로 인정되어 중국 선불교(禪佛敎)의 참 스승이 됨을 잊지 말 일이다.

쌓여가는 안거 경력보다 날마다 새 출발하는 간절심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수행이 관습화 되고 생활처럼 선원에 앉아 세월을 삭힌다면 행자 혜능의 육조 출현은 영원한 전설로 남을 터이다.

한국불교의 선원 구조는 구참(舊參)과 신참(新參)이 어우러져 짜여진 시간표 따라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안일함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선원의 지도자인 조실(祖室)과 방장(方丈)이 문중위주로 자격이 주어져 투표로 결정되는 희극 같은 해프닝이 엄존하는 현실이다. 수행력과 법력(法力)이 투표로 저울질되는 슬프디 슬픈 현실에 선지식 출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도자는 있으나 覺者는 드문 현실
간절함이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길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자라는 법이다.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선원의 풍토에 전통과 관례마저 흔들린 지 오래이다.

법력(法力)에도 서열이 있고 조실, 방장에도 조직의 세력화에 기우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활발발(活潑潑)했던 법거량(法擧量)이 자취를 흐리며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중이 스승이고 대중의 뜻이 부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승가 공동체의 공통분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발심의 또 다른 출가를 해야 한다.

대중의 처소에서 습의(習儀)를 익힌 다음엔 무소의 뿔처럼 홀로 외길을 가는 간절심의 정진(精進)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연을 스승으로 체험을 도반으로 길에서 길을 걸으며 길을 찾는 진정한 의미의 간절심이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 일이다.

우치재(愚癡齋)를 지낸 이야기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불교의 전통의식 가운데 재(齋)를 지내는 풍습은 매우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의식(儀式)이다. 재는 범어 우포사다(Uposadha)를 번역한 말인데 본래의 뜻은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정제(整齊)하여 악업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전어(轉語)가 되어 식사(食事)를 뜻하는 말이 되어 정오를 넘기지 않는 식사를 재라 하였다. 그러다가 또 뜻이 조금 달라져 법회 때 대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재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재라 하게 되었다. 불공을 드리는 것을 재를 올린다고 하였으며, 또 요즈음 와서는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것을 재라고 하게 되었다. 49재나 천도재, 수륙재 등은 흔히 쓰는 말이다. 천도(薦度)는 천혼(薦魂) 또는 천령(薦靈)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 재를 올려 영가(靈駕: 영혼)들로 하여금 극락등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주로 망인을 두고 천도한다 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제도(濟度)한다고 말한다. 재를 지내는 것이 중생회향(衆生廻向)에 해당한다. 중생이라는 말은 부처와 상대되는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에 있는 범부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죽은 이를 두고도 중생이라 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는 살아 있는 상태의 생물학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중생회향이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지내는 재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을 위하여 재를 지내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우치재(愚癡齋)라고 한다.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워 준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치하고 몽매하여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 세속적인 정에 얽매여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을 사람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하여 지내는 재이다.

이 우치재를 지낸 유명한 스님이 바로 중국 선종 가운데 조동종을 개창한 동산 양개(洞山良价807~869) 스님이다.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는 『조당집(祖堂集)』에 의하면 어느 날 동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다가 갑자기 대중에게 지금 바로 자신이 열반에 들겠다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깜짝 놀란 대중이 너무나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려 법당 안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이 상한 일은 숨을 거두었던 양개 스님이 얼마 후 다시 깨어나 대중을 조용히 달랬다는 것이다. 자신이 입적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울음소리를 내지 말라 하였다. 대중이 조용해지자 스님은 다시 숨을 거두었다. 얼굴빛이 다시 사색이 되는 것을 보고 대중이 다시 울음을 토했더니 한참 만에 양개스님이 다시 깨어나 하는 말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가려 했더니 대중이 소란을 피우니 할 수 없이 입적하는 날을 일주일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원주를 부르더니 저자에 가서 재를 지낼 시장을 봐 오라고 명을 하였다. 이리하여 일주일 동안 재를 지내며 대중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게하고 양개 스님은 일주일 후에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치재라는 이름이 생겼다 한다.

종교적 신앙이 깊은 사람은 죽음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성제 법문에서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라 하였다. 그러나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괴로움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원효스님이 사복이와 함께 사복이 어머니 장례를 치루면서 했다는 영가법문 이야기가 있다.

"태어나지를 마시오, 죽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죽지를 마시오.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莫生兮也 其死也苦 莫死兮也 其生也苦)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지혜가 으뜸이었던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비심엔 능히 즐거움이 생긴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⑱ 자비심이 주는 즐거움

愛悲勝品第二十五

施緣取。取緣愛。有愛則有取。無愛則無取。有悲必有捨。無悲亦無捨。愛故取增長。捨故悲增長。愛恩者生愛。是過患怨則增長悲心。愛增長ㅁ自己樂則害他。悲增長能與他樂自己則苦。愛增長而害他者則非希有。悲心者捨己身命而與他人。是ㅁ希有。愛著者名愚賤人。常在貧窮受諸苦惱。有悲功德者常處富貴。貪愛者可得斷絶。有止足時得智慧則能斷絶止足。得悲心者無有止足。常施他故° 愛心者能招集一切諸苦成大苦聚。悲心者能生一切功德。若悲不捨不淨業者我所不欲。設悲不能救濟我亦不欲。若悲不樂求菩提亦非我所欲。愛心者能生一切苦。悲心者能生一切樂。從悲起身口業者。名ㅁ勝業。悲心者能ㅁ一切眾生作無盡樂。

번역 | 애비승품 제25
베품을 인연으로 취함이, 취함을 인연으로 애착이, 애착이 있음으로 취함이 있고, 애착이 없으면 취함도 없습니다. 자비가 있으면 반드시 희사가 있고, 자비가 없으면 역시 희사도 없습니다. 애착하므로 취함이 증장되고, 희사하므로 자비가 증장됩니다. 애착을 생각하는 이에게 애착이 생기는데, 이는 과오요 걱정이요 원수이니 자비심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애착을 증장시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타인을 해롭게 합니다. 자비를 증장시켜 타인과 더불어 즐거워함이 자기에겐 괴로움이라도 애착을 증장시켜 타인을 해롭게 함은 특별할 것이 없지요. 자비심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타인에게 주는데, 이것이 희유합니다. 애착하는 이를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이라 하나니 항상 빈궁하며 모든 고통과 번뇌를 받는데, 자비의 공덕이 있는 이는 늘 부귀에 처합니다. 탐욕과 애착을 단절시킴은 멈추고 족함이 있을 때 지혜를 얻어 단절시키며 멈추고 만족합니다. 자비심에는 그치고 만족함이 없나니 늘 타인에게 보시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심은 능히 일체 고통을 불러 모아 크나큰 고통의 무더기를 이루지만, 자비심은 능히 일체 공덕이 생깁니다. 만약 자비롭더라도 희사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라면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요, 설령 자비롭되 능히 구제하지 않는 것도 내가 역시 바라는바가 아니요, 만약 자비롭되 보리를 구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도 내가 바라는바가 아닙니다. 애착심에 능히 일체 고통을 생기나니, 자비심에는 능히 일체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비심을 따라 몸과 입의 업을 일으켜야 수승한 업이라 하나니, 자비심은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다함없는 즐거움을 짓습니다.

해설 | 살다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롭지만 남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하다고 말을 듣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너그럽거나 자비롭고 싶어도 워낙 가진 게 없어 베푸는데 주춤거리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을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사는 게 사람살이라서 악착같이 모으며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악착같이 모은 것은 기쁨이기보다는 기실 괴로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질을 모은다는 것은 애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애착심은 고통을 부르고, 고통은 고통의 무더기가 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어쩌면 받는 이의 입장이지 베푸는 이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다. 가진 이가 더 악착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바 보살은 '만약 자비롭더라도 희사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라면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요, 설령 자비롭되 능히 구제하지 않는 것도 내가 역시 바라는바가 아니요, 만약 자비롭되 보리를 구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도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마음만 자비롭기를 바라지 말고 그 자비로움을 어찌하던지 실천하라는 것이다. 공덕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애착심으로 부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밥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임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대북
▶태징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구증구포 제다법 혼선… 기본에 충실하자"

박동춘 소장, 부산국제차어울림축제서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특별전 열어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11월 3~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축제 특별기획전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을 개최했다. 박동춘 소장이 토크콘서트에서 대중에게 한국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의 선사의 흑요 다관이 그믐달처럼 현묘했다. 다성(茶聖)이자 수행자였던 초의 선사의 친필서신에는 차에 대한 설명과 시가 담겨 있었다.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그리고 유학자 김명희 등과 주고받은 서신이다. 전시실 가운데는 '동춘차'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끝 맛에 남은 차향이 입안에 하루 종일 머물렀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3~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축제 특별기획전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을 개최했다. 전시기간인 11월 4일, 박동춘 소장은 '초의 선사는 어떻게 '초의차'를 완성했을까?'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한국 차의 현시대 과제와 해결법을 제안하고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동춘 소장은 "무엇보다 바른 제다법을 소개하고 전문 제다인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박 소장은 부드럽지만 의지가 강한 어조로 차 문화를 위한 바른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녹차를 좋은 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구증구포 제다법은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냉기와 독소가 있어 몸을 해치는데 어떻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바른 제다인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다 기술과 안목은 놀라울 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대중과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개최했습니다. 차의 기초는 제다와 탕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한국차를 위한 저의 소명입니다."

이어 초의 선사의 제다법을 기초로 한 '동춘차'에 대해 "이미 냉독을 제거했다. 기초를 중시해 이룬 결과"라고 했다.

한국차 방향 및 활성화 위해
다례보단 차 본연에 집중할 때
"전문 제다인 양성에 힘쓰고
제다 기술 공유해 문화 중흥"

"초의 선사의 제다법은 살청(무쇠솥에서 차를 덖음)과 유념(찻잎 비비기), 찻잎을 털어 다시 재건하기, 마지막으로 온돌방에서 하루 잠재우기라는 기초에 근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변화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불조절입니다. 불을 장악해야 합니다. 불의 높낮이를 관찰하며 차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 조절이 중요하며 또한 탕법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초의 선사의 차를 이었던 응송 스님은 '차는 찬 것인데 뜨겁게 마시는 것이 차이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박 소장은 "다례 중심 문화에서 차 본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례는 40여 년 전 그 시대에는 필요한 형식이었으나 이제 차가 중심이 되는 다례로 개편돼야 합니다.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한 다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 말미에 '백운과 명월 두 객을 허락하니 도인의 자리 이것이 최상승이로다(許白雲明月爲二客道人座上此爲勝)'라고 했습니다. 즉, 불이선을 상징하고 원융을 의미합니다. 자연과 합치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차 정신입니다. 현대인의 정신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차 문화가 중흥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편,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특별기획전시는 한국 차 문화의 원형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전시는 1부 '수행의 흔적 : 시문(時文)에 담다'로 시·서·화에 능했던 초의 선사의 다양한 면을 고찰하고, 2부 '지음(知音)의 아름다운 교유 : 시와 편지에 나투다'에서는 시와 차를 통해 초의 선사의 교우 관계를 설명했다. 마지막 3부 '다구 : 시대를 담다'에서는 근대 응송 스님의 차 생활과 이명균 현대 도예작가가 재현한 청자 다구 작품이 전시됐다.

하성미 기자

축구공으로 꿈·佛心 동시에

원오사, '명정FC' 창단



원오사가 어린이 축구단 '명정FC'를 창단하고 스포츠 포교에 앞장선다.

원오사(주지 정관)는 11월 4일 운봉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축구단 명정FC 창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원오사는 매주 토요일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어왔다. 원오사 축구교실은 건강을 챙기고, 친구와의 친밀함까지 동시에 얻어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게다가 주지 정관 스님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단체복 및 간식 등 풍부한 지원을 받는다. 이번 창단을 맞아 원오사는 지도사 1급 자격을 갖춘 석운용 감독을 정식으로 영입해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창단식 후 명정FC는 양정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축구단과 창단기념 친선경기를 펼쳤다. 친선 경기는 부산FC 선수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기운을 북돋았다.

주지 정관 스님은 "축구단은 법회에 찾아오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눈높이 포교"라며 "축구를 방편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천년고찰 장안사 황금빛 국화가 '활짝!'

사계절 주제 사진 공모도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이 축제에 참여한 대중에게 국화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이 천년고찰 장안사를 둘러쌌다. 경내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국화꽃이 활짝 펴 방문객을 반겼다.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정오)는 11월 3일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국화향기를 품다'를 개최했다. 장안사 경내와 주차장을 잇는 다리 불광교 개통식과 함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 청량사 보혜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안사는 부산 기장을 대표하는 사찰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열린 사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국화 분재는 기장군에서 활동하는 국화동호회 회원들이 손수 작업한 작품들로 200여 점이 마련됐다. 국화전과 함께 열린 오재현 작가의 불모전을 감상하던 시민들은 합장하며 미소 지었다.

하성미 기자

장애인과 우정 20년 '한마음체육대회'

부산 보현회 11월 5일 경쟁 없는 운동회 열어


부산불교 보현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제20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사상 괘법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축구경기가 펼쳐지는 운동장에 40명의 인원이 들어섰다. 일반 축구 규정과는 거리가 먼 경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웃음꽃을 피우며 쉴 새 없이 공을 주고받았다. 경기이지만 경쟁은 아닌 화합의 자리, 부산불교 보현회가 20년간 이끌어온 한마음체육대회 현장이다.

부산불교 보현회(회장 안성이)가 11월 5일 '제20회 한마음체육대회'를 부산 사상 괘법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20년 동안 장애인과 함께해온 행사다. 매년 한마음체육대회에는 성우원,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평화의 집, 체리동산, 한마음직업재활원 등 부산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왔다.

행사 내용은 소박했다. 축구, 훌라후프 돌리기, 보물찾기 등 경쟁 없는 작은 운동회로 진행됐다. 훌라후프는 몇 번 돌리자 이내 떨어졌고 제기차기도 생각보단 안 됐지만 실망하는 얼굴은 없다. 보물찾기에서 상품권 종이를 많이 찾은 사람은 다른 팀에게 나누는 넉넉한 모습도 보였다. 점심시간, 보현회는 준비해 간 보쌈, 순대, 밥과 국을 학교 급식실에서 바로 조리해 따뜻하게 대접했다. 행사 후 준비해간 선물 130여개도 전달했다. 참가한 장애인들은 "이날만 기다렸다"고 했다.

허정훈(34·지체장애) 씨는 "10년 넘게 행사에 참여했고 회장님을 알아왔다. 오늘 아침 8시에 도착해 준비할 정도로 기다렸다"며 "빈혈도 있고 건강이 안 좋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보현회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절, 고아원과 장애시설을 돌며 봉사했다. 봉사를 하던 중에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고심하다 체육대회를 기획하게 됐다.

안성이 회장은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았다. 그 당시엔 먹거리도 구하기 어려웠으니 풍성하게 먹이려 애썼다. 그리고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주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 번씩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마주치면 언제 운동회 하느냐고 항상 물어본다.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다"며 미소 지었다.

하성미 기자

청소년합창제 대상 '마산제일여중'

(사)부산파라미타 4일 개최


청소년합창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마산제일여중 학생들.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며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올해의 대상은 마산제일여중에게 돌아갔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11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청소년합창제 올해 대상 영예는 마산제일여중이 안았다. 마산제일여중은 노래를 통한 화합과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경남도학예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한스쇼콰이어, 은상은 명인중이 받았다. 동상은 마산제일여고와 아산중이 각각 수상했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아름다운 화음을 완성했다'는 행복한 이야기 한편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대회사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합창제에는 총재 경선 스님,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前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선운사 새해 출가체험 템플스테이 마련

내년 1월 6박7일 일정

강학과 수선의 도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새해부터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선운사는 새해 1월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과정의 하나인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출가체험은 불교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해봄으로써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종교를 떠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가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예불, 좌선, 1080배, 금강경 독송, 법문청취,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기간 동안 매일 발우공양으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며 오후 불식도 체험한다.

선운사 연수국 담당자는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종교를 떠나 사찰공동체 생활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어려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가체험 기간은 2018년 1월 6일(토요일)부터 12일(금요일)까지며 참가비는 성인 5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선운사는 11월부터 재가불자들을 위한 철야참선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지장보궁에서 진행되는 철야참선법회는 기획국장 대선 스님의 지도로 오후 8시부터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성 스님 "아이들 웃음꽃 되찾도록 앞장"

아동센터 후원금 300만원 쾌척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신 함양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진성 스님은 11월 6일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덕진구청에 전달했다.〈사진〉이날 진성 스님과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송운 스님, 마이산 탑사 탑 밴드 봉사단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진성 스님은 "올바른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어린이들이 지나친 온라인게임 몰입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덕진구청은 후원금으로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단을 통해 지역 아동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스포츠 스태킹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서지역 불교 미래 다진 백일장

장보고아카데미, 완도 신흥사서 청소년 초청

도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사)장보고아카데미는 11월 1일 신흥사에서 '장보고대사 추모 제11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대회'를 개최했다. 장보고대사 탄생 1176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는 완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유일의 청소년 불교 백일장 대회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백일장 대회는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엽' '나' '낮잠'을 시제로 운문(시), 산문, 그리기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운문(시) 부문 전라남도지사상 박윤진(완도수산고 1) 양, 산문부문 전라남도교육감상 이다선(완도여자중 3) 양, 전라남도의회의장상 김란화(완도중앙초 1) 양이 선정됐다.

경연에 앞서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을날 절 집안을 찾아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맑은 가을 날씨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림과 글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광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임

회장단 · 감사 등 구성 우수활동자 시상식도



광주불교를 이끌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사진〉이 광주불교연합회장에 연임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6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연광 스님의 제3대 회장 당선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회는 이어 수석부회장에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과 명신 스님(지산동 연화사 주지)을, 감사에 인성 스님(행정감사, 관음암 주지)과 지원 스님(제정감사, 주월동 연화사 주지)을 선출했다.

연광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종단을 떠나 일불제자로서 승가의 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많은 사찰과 단체의 노력 덕분에 광주불교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광주와 호남불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전했다.

연광 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회관을 통해 광주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지역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서는 1년간 광주지역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의 발전에 기여한 도계스님(소원정사 주지)을 비롯해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기여한 임형칠 정광고교장, 김달중 광주운전자불자회장, 윤혜숙 사진문화반 강사, 강민엽 사진문화반 대표, 장현덕 봉축행사 율동리더, 민은희 불자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 부설단체인 광주불교산우회 김등수 회장, 김인석 산행팀장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2017활동보고서'와 '2017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을 발간하고, 1년간 광주불교연합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활동보고서에는 '불교사업' '문화사업' '나눔사업' '특별위원회 및 산하단체활동' '대외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다. 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은 지난 3~10월까지 진행된 봉축행사 활동에 대한 사진과 해설을 함께 담았다.

행사는 1년간 광주불교연합회의 활동 사진 영상 상열을 시작으로 향림사 합창단 축하공연과 불교의례, 시상식, 인사말과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결산과 예산안도 통과됐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내년 봉축행사 준비를 위해 봉축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며, 12월 독거노인 겨울 연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영산작법보존회가 무형문화재 주간을 맞아 열린 전주시 행사에서 장엄한 영산작법을 연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주간 빛낸 전북영산작법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불교 전통문화 알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2017년 무형문화재 시연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주간을 맞아 10월 2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시연회는 부회장 혜안스님, 교육원장 지산 스님, 총무 정수 스님, 도인사 도정 스님 등 30여 명의 전수자와 이수자스님들이 동참했다.

시연회는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헌좌게, 다게작법, 기성가지, 사홍서원 순으로 정중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연과 일로왕 번을 비롯한 각종 번으로 장엄된 시연회에는 불교 전통소리인 어산과 작법이라 불리는 착복과 함께 태징, 요령, 목탁, 소북, 해납, 나각, 나팔, 박 등 불교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져 영산회상을 재연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작법보존회 공연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불교의 전통예술과 의식을 다양한 계층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0바라와 10착복은 웅장한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관람객들로부터 큰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혜정 스님은 "많은 불교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무형문화재인 영산작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며 "불교의 맥을 이어 불교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북지역의 남원, 무주, 이리, 전북, 화엄불교대학 등 5개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가 11월 4일 전주교육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사진〉 전북지역 불교대학 학인들의 소통과 지역불교 발전을 기원하며 열린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는 각 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각 불교대학인들은 배구, 단체줄넘기, 2인3각 달리기, 터치 볼 등의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올해 대회서는 전북, 이리, 화엄불교대학이 공동 우승했다.

전북사암승가회장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은 대회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는 청명한 가을하늘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며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의 본분사가 되는 날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군 호국 의상암 군 장병 위문법회

공군 8351부대 호국 의상암(지도법사 여산 김윤봉)이 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11월 9일 부안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법회는 박용수 대대장을 비롯한 군장병들과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 부대 관계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밸리댄스팀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으며 장병들은 족구 등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사진〉

행사를 주관한 김윤봉 법사는 "항상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에 임해달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은 "군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탈종공고

- 사찰명 : 공덕암
- 주 지 : 동파(이영규)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화성길 27
- 신청인 : 김영순

위 사찰 공덕암과 주지 동파(이영규)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덕양사
- 주 지 : 무애(김영재)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50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고귀한 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행사, 회심곡
(화청), 바라춤,
염불, 49구재,
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6246-6672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것을 알 수 있다 (암,질병,묘터산소,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보담스님 하늘소리
영가천도. 점안 각종
의식.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010-9229-9899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원합니다
(61세 비구스님)
* 역학상담 가능합니다
010-5407-8034

절에서 처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면허, 60대,
숙식가능)
010-6476-60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가평)
010-3774-4099

기도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절에서 공부할 행자
모십니다
(부산)
010-3840-4355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불교실전의식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북,태징,요령,목탁) 및 바라춤, 나비춤,법고(홍고)를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휴심사교육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4번 출구)
010-8588-2816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루는 특수한 기도법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당뇨, 고혈압, 치매예방, 손발저림
치유가능
약손스님 현오
010-5647-3915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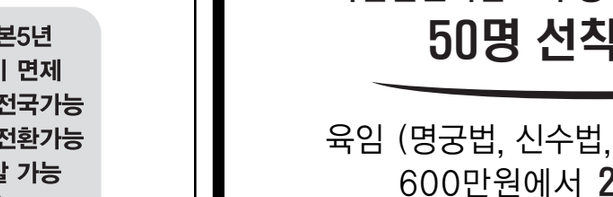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어깨통증환자를비롯해수많은증상들로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살기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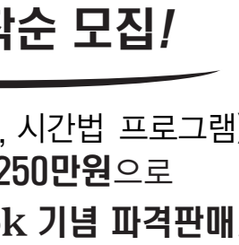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영혼과 마음을 밝히는 천상의 침향
머리가 맑아지는 수험생 합격성취
신비의 침향염주입니다.
주 문 : 전화·문자 010-4475-6611 (주소와 성명, 염주 번호를 선택하여 주문주세요.)
계 좌 :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보급처 : 캄보디아 국제NGO 자비의 등불 후원사업체(향불원, 등록번호 221-82-72640)

교육학 박사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교육과정 개강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강의.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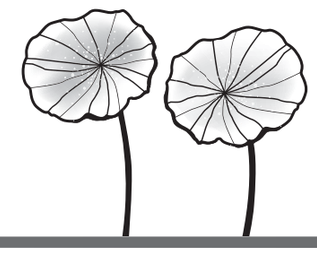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화를 떠나라, 아만(我慢)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끊으라 헛된 망상과 소유에 집착 없는 이에게 고난은 결코 닥치지 않으리라.

– 법구경 –



경북 영양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800㎡
- 사찰이 조용하고 깨끗하며 면소재지 부근
- 양도가액 : 1억 6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 770-2(허)가 06-2231
공신공인중개사 "급 매물"안내
- 위치 : 부산시 15분 거리 근교.. 양산 명곡 마을에 위치한 사찰
- 대지 200평, 건물 120평(대웅전, 요사채, 불두) 마당, 일주문
- 주위 대지시세 약 3백만원,
- 등기부 매입시 8억8천만원 등재
- 급한사정 : 8억 3천에 양도

010-3570-00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 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예천 사찰(급)안내
- 마을사찰. 남향
- 토지 40㎡. 인법당. 주차가능함
- 운영잘되는사찰. 깨끗하고 신도관리사찰
- 스님사정상 양도. 위치좋음
- 양도가액 : 1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상가 건물 5층건물에 반지하 대형사찰 198평
- 시설A급. 현재 법회를 하고 있고, 몸만오시면 됨
- 관리비등은 걱정 무! 부동산 사절!
- 은행 융자 9,000 안고, 1억 8천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 ~ 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11
- 부곡시장 상가 2층 35평
- 보증금 2000만, 월세 40만 (조정가능)
- 시설비는 현장 보시고 결정

010-5522-66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시장 앞 대로변 중심지역 7년하던곳
-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정도 법당.방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3백40십
-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 시설합 1350 만원

010-2847-6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500평 남짓 법당 목조,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일억 8천 모두 합 2억 5천 5백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 달발골
- 부지 : 10필지 3,036평
- 용도: 대지 3필지 469평 전 7필지 2,567평

법당: 38평, 창고: 15평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12억

010-2480-2918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0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7억 8천만원

010-5923-3388

단독 건물 포교당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내 (최고요지)
- 3층건물 중 3층 전체 약 50평
- 옥상 단독사용 (7년 운영)
- 대작불사로 인연있는 스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 40만
- 벽돌도배 및 냉온풍기 시설 최상급

010-5134-8108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 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각단탱화,법당,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 평당 10만원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 후 결정 주인 직접. 현재 사찰 운영 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 건물,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 거리

010-3879-2544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 2천(5천만원 빼드림)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부지 : 대지 136평
- 건물 : 46.42평 1층 법당 2층 거실방 3개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3억 8천만원

010-2480-29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30평
- 방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 시내에서 5분거리, 입지 조건 최고

010-2498-78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암자터(펜션.전원주택)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소재
- 대지 300평. 건물 25평 (조립식). 전답 921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명당터. 토목 조경 완료
- 가액 : 5억

010-3518-395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 법당, 용궁전, 산신각, 요사채
- 총 1,515㎡ (458평)
- 가액 : 6천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야간, 창고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5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8평 요사채1 40평, 요사채2 26평, 기타 8평
- 국내유일의 나전칠기탱화 상단, 신중단
- 지방문화재급:석조미륵마애불상 탱화(약 150년) 100년된 석조지장보살
- 5층석탑:석조금강역사 2구(석조)
- 가액 : 12억

010-9245-821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 상가 3층 4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모든 시설물, 집기류 전부 양도

010-3102-53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친환경 삼베타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 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기도터(급)안내
- 소재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 대지 200평, 농지 770평 집 1층, 콘크리트 33평 방 3, 화장실 1, 다용도실 2 2층 법당 슬리브 판넬지붕 11평
- 사각정, 물레방아 연못, 소나무 80 그루
- 양도가 : 2억 5천 급 양도

010-9274-180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지역 팔당역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20평
- 몽땅 : 1억 3천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절충가능

010-6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바다전망 좋음
- 105평(실평 76). 3층 중 3층(신축건물)
- 엘레베이터 2대, 주차 50대, 법당 5존불 , 탱화
- 종무소, 공양정, 원목락카, 수입원목설비 방3, 욕실3, 샤워부스3, 친견실
- 부산 기장 바다 전망.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4천5백만원

010-3832-6626
010-2065-33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 : 공양실, 방 2칸
- 가액 : 2억 7천

010-3508-771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최적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주방,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법회
- 보살님, 법사님 자리로도 명당 주차 1
- 가액 : 보 1,000만원, 월 30만 시설비 600만원

010-7583-12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독채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50평
- 1층 : 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2층 : 방 3, 거실
- 도로변대문 3m 연결 냉난방시설, 얼마전 올수리 일반주택구조, 동남향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인테리어비)

010-6838-3140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평수 : 400 평
- 법당, 산신, 용왕, 공양간 스님 방, 건물 6동 집기일체 완비
- 법회 바로 할 수 있음
- 사찰 앞 아름다운 연못
- 꼭 하실 분 연락 바람
- 가액 : 보증금 2천, 월 50만

010-3850-7179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각단탱화,스님방사,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 내, 방 2개, 주방 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불교국가 아프리카서 전법 '활발'

대만 · 베트남 각각 센터 건립, 아동 교육 전개

남아공서 고아 교육, 대만 유학
모잠비크에선 베트남센터 추진



아프리카에 '아미타불 케어센터' 등이 생기며 불교 바람이 불고있다.

사진출처=알자지라 뉴스

불교국가들의 아프리카 전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알자지라 뉴스'는 10월 21일 '아프리카 고아들은 만다린, 불교, 쿵푸를 배운다'(African orphans learn Mandarin, Buddhism and kung fu)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불교 전법에 대해 다뤘다.

'알자지라 뉴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미타불 케어 센터(Amitofo Care Centres)에서의 교육과정을 조명했다. 아미타불 케어센터는 대만 '후이 리(hui Li)' 스님이 설립한 곳이다.

1992년 처음 후이 리 스님이 아프리카 방문 당시 아이들의 부모들이 에이즈로 인해 이른 나이에 죽는 것을 보고 원을 세운 이후 2005년 말라위에 건립됐다. 아미타불 케어 센터는 5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등에도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곳에서 아이들은 오전에는 교과 과정을 배우고, 오후에는 불교와 중국어, 쿵푸를 배운다. 아이들은 대학 진학이나 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18세까지 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대학 진학의 기회도 제공된다.

현재 말라위의 26명의 학생들이 대만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레소토와 스와질란드 센터 또한 5~6년간 운영을 통해 비슷한 수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특한 점은 아미타불 센터가 대만과 홍콩의 기부자들로부터 70%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기부와 후원을 받고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정부와도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센터 건립 또한 기부된 땅에 세워진다.

이와 함께 아이들 선발 과정도 국가기관, 지역 커뮤니티의 엄격한 과정과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잠비크에서는 베트남불교협회가 베트남 불교를 알리고 있다. 베트남플러스는 10월 30일 '아프리카에 베트남 불교가 소개되고 있다'(Vietnamese Buddhism introduced in Africa)는 보도를 통해 베트남 불교협회의 아프리카 활동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협회(VBS) 중앙위원회는 최근 모잠비크 불교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불교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 행사에서는 모잠비크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모잠비크 내 불교협회를 인증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우호를 함께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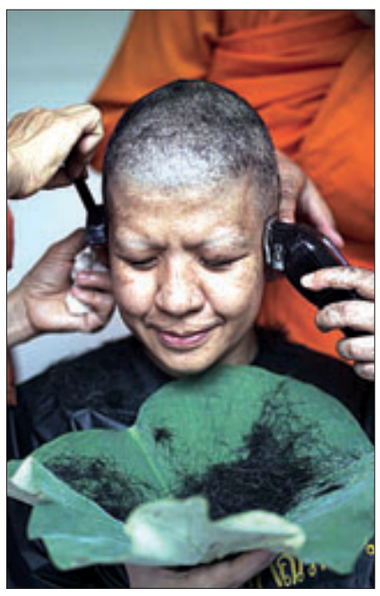
베트남불교협회가 추진 중인 모잠비크 베트남불교센터는 4 헥타르의 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중앙에는 불탑도 함께 건립된다. 센터 건립과 함께 베트남불교협회는 모잠비크 산간 지방인 텍삼비칸 지방의 가난한 학생 300명을

모잠비크 정부 대표인 아라오 리쓰리 씨는 "베트남의 불교 신자들이 베트남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자선 활동을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국서 비구니 戒壇 생기도록…"

태국 비구니 인권위해 힘쓰는 담마난다 스님 '화제'



여승에 수계를 금하는 태국에 스리랑카를 통해 수계를 받고 들어오는 비구니가 늘고 있다.

사진출처=더 위크

인구의 95%가 불교지만 비구니가 없는 나라, 태국서 여성 출가자들을 위해 애쓰는 비구니가 화제다.

미국 언론사 '더 위크'는 10월 28일 여성은 계를 받을 수 없어 비구니가 없는 태국에 여성들의 출가와 인권에 힘쓰는 담마난다(Venerable Dhammananda, 74) 스님을 소개했다.

태국서 1928년 제정된 승가법은 비구가 비구니에게 계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율장에 따르면 여성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 출가는 가능하지만 '치' 혹은 '매치'라고 불리는 여성출가자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출가한 여성출가자들은 대부분 절에서 요리, 청소, 바느질 등을 한다. 태국의 비구들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서 해방되며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존경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 해결책을 찾은 비구니 스님이 있다. 주인공은 차츠만 카빌싱. 카빌싱은 2003년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 수지 후 '담마난다 스님'이 되어 태국으로 돌아왔다. 근현대 태국의 첫 비구니 스님이다. 이후 많은 여성 출가자들이 스리랑카서 비구니계를 수지했고, 현재는 송담마칼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으로 모여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비구니 처우 개선 주장
여승에게 수행 장소 제공

비구니 스님은 늘고 있지만 태국 정부와 태국 불교계는 아직 비구니 스님과 주석 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국 비구니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여성들도 구족계를 수지한 수행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태국서 비구니 스님의 온전한 수행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태국의 재가 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을 감시하고 억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더 위크'는 "비구 스님 중심 태국 불교계가 최근 돈과 성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청정 승단을 바라는 재가불자들의 바람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담마난나 스님은 "불교의 숭고한 정신적 목표에는 성별이 없다"며 "모든 여성에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나 일부 비구들은 우리를 '무단 침입자' 취급하지만 여성 지도자들의 새로운 물결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태국에도 비구니 계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美NFL감독, "무상하다. 지난 일 집착말라"

미식축구팀 '불교'로 Cheer up!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연패극복기 화제



인기 미식축구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불교 원리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전해 화제다.

사진출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공식홈페이지

NFL 인기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연패의 수렁에서 힘들어 할 때, 불교로 극복해냈다고 밝혀 화제다.

'디트로이트뉴스'는 디트로이트 소속 미국프로미식축구(NFL)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짐 칼드웰(Jim Caldwell)감독이 불교로 팀의 사기를 진작했다고 10월 23일 보도했다.

짐 칼드웰 감독이 전해준 이야기의 핵심은 '무상(無常)'이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 무상이란 만물은 항상 변하며, 영원한 실체로 존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다. 따라서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라는 교훈과 연결된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감독이 "이젠 지난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소리치며 지쳐있는 선수들을 위로했다"며 "연패를 했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마지막 주에 좋은 승률을 기록한 것은 감독의 멋진 독려 덕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식축구는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중 하나인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고 인기 미식축구팀이다. 극성팬이 많아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코스프레를 한 팬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앵그리 아시안 불자' 아론 리 사망

미국 젊은 세대 인기 불자
오랜 암투병 끝 결국 사망



미국 젊은 세대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큰 역할을 한 아론 리의 사망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아시아계 혼혈로 '앵그리 아시안 불자' 블로그를 운영하며 미국서 포교에 힘쓰던 아론 리(Aron Lee)가 사망했다.

'라이언스로어'는 11월 7일 '앵그리 아시안 불자(Angry asian buddhist)'를 운영하며 불교 포교에 힘쓰던 아론 리(Aron Lee)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아론 리는 34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론 리는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했다. 골수 이식 수술 등 많은 종류의 힘든 수술을 받았지만 항상 낙관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아 추억을 공유하고 애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라이언스로어'는 "그의 글들은 사람들에게 미국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줘왔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의 글을 보며 불교와 가까워졌다. 가끔 강한 어조의 글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면모가 신뢰성을 더해주기도 한다. 여기에 따뜻함과 위트까지 더해진 글이었다. 그의 글은 마치 불교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았다"

아론 리의 생전을 추억했다.

박진형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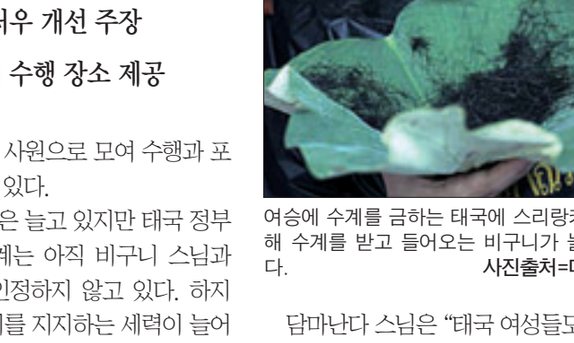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면발광 LED 인등



수법미단 당장업일체
단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11〉 진정한 행복을 위한 마음 혁명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서로 연결됨 알 때 괴로움도 줄어든다



도덕적 행위의 아름다움

인도에서 스승님 한 분을 미국으로 모셔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미국에서 우리가 행하는 불교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본 것에 대해 대부분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서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노 젓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연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또 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를 부두에서 풀어놓는 일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수행 체험, 즉 공간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넘어선 체험이나 멋진 초월감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배관 수리공이나, 집안을 엉망으로 어지럽힌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민을 표현하고 또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얼마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수행의 길을 가는 도중에 강력하거나 미묘한 경험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길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포함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극소수 사람만이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붓다가 법(Dharma)을 가르치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을 살펴보니, 많은 존재들이 행복을 이루려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무지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지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붓다가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했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점을 먼저 주지시켰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윤리적인 일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붓다의 영감이었습니다. 만일 마음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내적인 상태가 외부적으로는 다른 존재들을 보살피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 즉 규범(戒)으로 표현된다고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이 둘은 같은 빛의 두 측면입니다.

빨리어에서 실라(sila, 戒)라고 하는 윤리적인 행동은 베풂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그것은 길의 시작인 동시에 그 길의 크나큰 결실이며, 마지막 도달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붓다는 도덕적 행위를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이고 형식적이고 쉽게 변하는 미적 감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과 관심, 돌보는 마음을 보여 줍니다. 붓다는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작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배려, 이 모두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하고 정신적인 진리를 찾고자 원하며 만물의 삶을 꿰뚫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화 속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業의 과보는 서로 다르다

계를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계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고 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더 깊은 행복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존재로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정확하게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붓다는 우리와 같은 범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론이나 인식에 의해서 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붓다의 경지 · 선의 경지 · 업의 과보 세상에 대한 사색)' 가운데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이나마 업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일
수행의 길 걷는 시작 단계
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나은 삶의 가능성 열려

업의 법칙은 삶 속에서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유일한 조건이나 방식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조건들 중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식으로 쉽사리 인생에서 희생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주받았다거나 축복받았다고 느끼며, 저주나 축복 모두 자신의 일부라기보다 그저 환경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을 이해하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한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소유자이다."

업이야말로 우리가 생을 거듭하면서 지니고 다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말과 행동의 배후에 있는 동기나 의도는 매 순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됩니다. 의도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씨앗은 어떻게든 결실을 맺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불편하거나 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업의 법칙은 기계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이 결실을 맺을 때 실제로 많은 변수를 용인합니다. 모든 의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들은 변경되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만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행위가 초래하는 업의 결과는 아주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진실하고 연민의 마음을 지닌 채 살고 있다면 그 거짓말은 개선되겠지요.

이처럼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조건들 때문에, 붓다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업의 과보가 똑같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속적인 관념에 따르면 모기를 죽인 사람은 이 생 또는 다음 생에서 모기 떼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업이 이처럼 결정론적이라면 붓다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업의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양한 상호 작용 속에서 결과를 체험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피하진 못해도 개선할 수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력의 장(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쌓아 온 업은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도 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어 낸 장에 의해서 거의 똑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변명을 했다면, 그 행동은 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절제와 마음챙김, 자애 수행을 열심히 닦는다면 우리 삶의 흐름은 점차 넓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깜빡 잊고 부주의하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업의 씨앗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색다르고 탁 트인 환경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 즉 정신적인 수행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을 닦을 때, 그 행동과 결과는 열매를 맺어 광대하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의 힘을 강하게 만들면 우리 마음은 색이 칠해질 수 없는 허공과 같이, 또한 결코 불탈 수 없는 순수한 강물같이 될 것입니다. 숲속에 숨거나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써도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는 주의 깊게 사랑을 지니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업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이가 아플 때 우리는 더 이상 치과 예약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래, 이것은 내 업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면서 통증이 더 깊어지도록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덜 화내고, 덜 괴로워하고, 덜 집착하면서 무언가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알아차림 자체는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 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법을 보호한다면 그 법은 다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지하고 떠받든다면 우리 또한 지지받고 떠받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법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낼 때 우리는 피난할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며 계를 지킴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우리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인 법은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하나의 각도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전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 이 네 가지 고귀한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해치지 않는 행동을 발견합니다. 해침이 없는 행동 안에서 우리는 네 가지 고귀한 마음, 즉 천신들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혁명적인 원천입니다. 〈끝〉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용중인 법당의 앰프, 스피커를 최고급 "파워드믹싱 앰프"와
아래 장비로 단 160만원 에 소리 공양차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회수 해 옵니다)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700,000 +
무선핸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 (1가지 선택) 가격 300,000 +
각종 마이크 코드 탁자 설치비 일절 비용 : 250,000 =
무선랜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 (1인용 선택) (기본으로 무선 핸드나, 무선 헤드셋 중 한가지 선택)
주지스님 전용! 자체 소리조절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85,000원

실제대금 ~~2,450,000원~~ ➡ 160만원 에 할인 설치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법당의 앰프 설비 보상교체 신청법!
본 설치는 무료 보시 및 보상 성격상 출장 설치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상품을 예약시 우측의 계좌로 앰프 구입비의 계약금 '50~60% 정도 입금' 하시고 주소 및 희망 설치일,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CD 플레이어 5개 연속사용 가격 : 350,000원



대행 스님

마음에서 고장 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수계를 받는 마음 자세

질문 얼마 전 꿈에 제 안에 입력되어 있는 과거의 거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으로 올라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진화해 오면서 살아왔던 과정이 보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발심을 해서 제 안에 입력되어 있는 업식들을 반드시 녹여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년마다 하는 수계법회이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계를 참답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들께서 지펴주시는 향불에 제 안의 업식을 다 소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계를 받는 마음 자세를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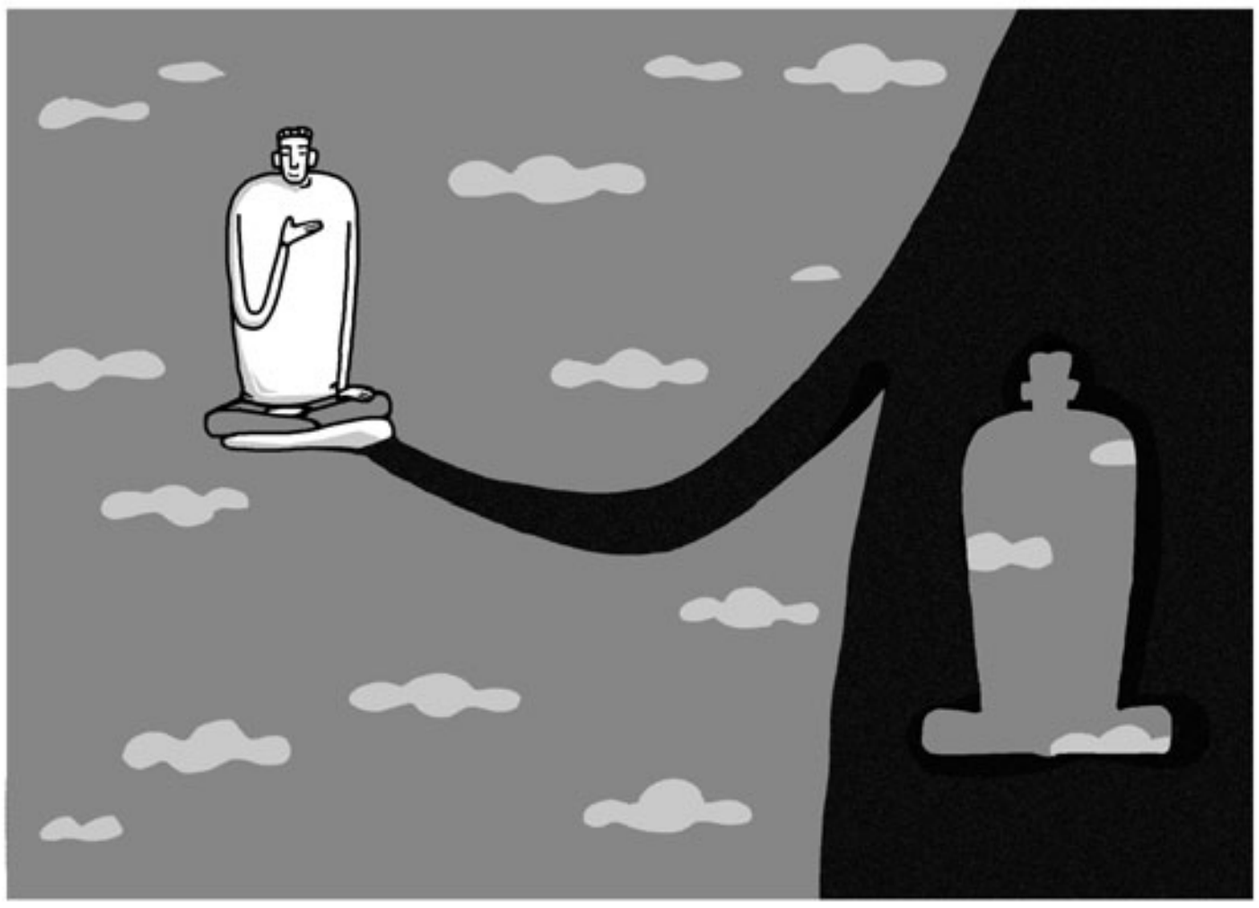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변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고장 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생동력 있게 또 걸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진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육통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통이 돼서 말입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하나만이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몸뚱이를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려면 내 마음 자체를 움죽거려야 이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그대로 잘하고 나간다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다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털구멍을 통해서 바로 나가서 조절하고, 안에서 모자라는 건 작용을 해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줍니다. 즉 마음을 따라서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의식은 보살로 화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하시면 의식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 육신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르니까, 마음공부들 열심히 해서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들고 난다면 그것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의 생명의 의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이게 전부 수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는 오계를 설하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전체 다섯 가지가 다 '마라'로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샛문을 틔워 놓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분수를 알고 마셔라.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더라도, 짐승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에 맡기고 하면 그대로 두 마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살아난 사람의 마음이나 죽는 고기의 마음이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고기는 고기의 허물을 벗고, 모습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쪽에는 그 고기의 살을 약으로 먹으니 병이 나아서 좋고,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스스로 남을 위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남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벗어야지 만약에 말이나 이론으로 벗으려면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만날 말씀해 드리는 게, 부처님 말씀하신 것에 입을 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열심히 하셔야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내 형상이고 부처님의 법도 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둘 아니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기를 방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가발전소에 가설이 돼야 전력이 들어오죠, 가설이 돼야. 그런데 가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줄과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요. 전기 가설이 돼 있듯이 말입니다.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즉 우리들의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단 얘깁니다. 전기 가설은 다 돼 있는데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으니 이게 불이 생전 가야 들어옵니까? 그걸 누를 줄을 모르고 누르는 거를 해 놓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를 줄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을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조상을 이끌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옷을 벗고 다시 나올 때에 차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공부는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천체 물리가 터져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권 말입니다.

참회의 참뜻 알고 싶어요

질문 참회란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는 등의 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행법으로는 이참법, 사참법등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삼매경에 "어떻게 하는 것을 참회라 하나이까?" 하고 아난이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진실관에 들 때 모든 죄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상임을 관하면 죄과란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죄가 없어지고 번뇌 망상의 마음이 없어지면 이참, 곧 참회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참회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고, 혹 어떤 도반은 예불 시간에는 참회하라

☞ A18면으로 계속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진실로 한번 돌려 놓는다면 그대로 녹게 되는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고 하는데 참회와 예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법회에서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어떤 농부가 논일을 보러 나가다가 보니까 논두렁 옆 숲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지 새끼 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들고 있던 삽으로 그 구렁이를 뭉텅뭉텅 끊어버렸습니다. 구렁이야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구렁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 농부는 손주를 다섯 낳았는데 모두가 다 불구자였습니다. 큰 아들이 손주를 낳아도 그랬고, 작은 아들이 손주를 낳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하겠지만 사실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기구한 인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 대(代)째 내려오는 깊고 깊은 업연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심중에 저지른 일 때문에 내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저 모르고 받습니다만,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전에 내가 지은 생각이나 행동과 연결되지 않고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즈음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모든 업보가 한군데에 입력되어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솔솔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기에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놓아야 앞서 입력된 것이 지워지므로 몰록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과의 법칙을 다 알고 나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때가 늦습니다. 내 앞에 닥쳐오는 대로 모든 경계를 순간순간 되돌려 놓아서 새로이 입력되게 해야 합니다.

그 도리를 믿고 그렇게 한다면 모든 업들은 다 녹게 되는 것이죠. 설사 지난 생 어느 때에 죄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한번 돌려놓는다면 그대로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돌려 놓는 수행이야말로 참회 중의 진참회(眞懺悔)요, 공덕 중의 공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주인공 한 마음에 놓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참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참회하는 것이요, 법당에서 예불을 모셔도 참회하는 것이요, 남을 위해 한생각 내주는 것도 참회하는 것이니 즉 일체를 그 자리에서 함을 믿고 놓아가다 보면 참회할 것조차 없음을, 놓을 자리조차 없음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자리를 마음껏 쓰려면…

질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마치 허공과 같이 꽉 차서 공한 그 자리, 바로 모습 없는 나의 참나가 세상 모든 것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껴도 보고, 울어도 보지만 여전히 우매한 중생인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습과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정말 죽어서, 항상 둘이 아닌 내 본래 자리를 마음껏 쓸 수 있을는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답변 공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쳐야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착이기 때문에 빨리 깨쳐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놓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빨리 깨치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그런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 먼 데까지 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어져서요.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하나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을 보면 오관을 통해서 지금 오신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위법만 활용을 하지 무위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남을 위해서 방편으로 했다면 잠시 거짓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 생각해서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타인의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똑같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 되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야만 한다는 그 관념에 머물러서 얼마쯤이나 더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 가면서 턱턱 밀고 나가 보세요. 의심을 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점점 감응이 와서 느끼게 됩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라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이 생깁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와요

질문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밤에 꾼 꿈을 다음 날 아침이면 현실로 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 스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죽은 사람을 보든지 귀신을 보든지 선신을 보든지 놀라지 말고 항상 둘이 아닌 걸로 안다면, 그렇게 꿈꾸는 것을 두렵고 무섭게 보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오는 그 날짜에 임박해 가지고 꿈이 꾸어졌는데 귀신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환상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다." 하는 것만 알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그 자리에다 도로 놔 버린다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들 하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건 시험이다,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하고 그냥 거기다 놓아야 합니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지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에 속지 마라. 어떤 것이 나오걸랑은 네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을 해라." 이렇게 항상 나는 말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딴 데서 오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둘로 보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안 되죠.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 꿈도 꾸게 하고, 또 현실에서 벌어지게도 하는 것이니 '아, 나의 근본자리와 항상 한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끌어 주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으면서 '주인공, 꿈이 현실로 벌어지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당신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참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님의 가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생이 이상하고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래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바로 꿈이에요.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자기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양으로 주인공이 그렇게 이끌어 주는 거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모든 것에서 주인공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공이 학생을 이끌어 주는 것이니, 주인공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항상 주인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길 바랄게요.

우리 학생이 마음이 맑고 순수하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아마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참 이 나라에 소중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린이법회에 참석해서 궁금증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스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간다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 모든 것을 둘 아니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 · 무위법 둘 아니게 보려면…

질문 제가 올릴 질문은 유위법과 무위법을 같이 아우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묻고자 합니다. 공부에 진전이 있어 지혜가 생긴다면 유 · 무위의 세계를 둘이 아니게 차고 나갈 수 있으련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지라 부딪치는 경계마다 일방적으로 유위법, 무위법으로 구분 지어 그것에 착을 두게 되어 한 말씀 여쭙니다

답변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라,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일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깊이 알고 보면 마음의 과학이야말로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과학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법은 무위(無爲)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유위법(有爲法)을 다루어 이치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마음법은 보이지 않는 원리,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까지도 밝혀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완전한 상태로 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위행과 무위행이 두루 갖추어져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든 자유롭고 드넓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일반적인 과학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산다면 우리는 끝끝내 우리 자신을 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들의 목표인 열반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시대에, 작게는 우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이끌면서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위해 크나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 즉 주인공을 찾는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부터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만이 나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국가, 인류의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모두에게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다면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밖에서만 찾는다면 분별하고, 다투고, 불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안으로 깊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진실해지고, 무거워지고, 자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광대하고 묘한지, 느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텅 비었고, 텅 비었으나 거기에서 미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 너를 초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하라는 겁니다. 한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깥으로만 끄달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비유하지요. 용광로에 다 낡아서 못쓰게 된 헌쇠를 넣는다면 다시 새로운 갖가지 도구로 재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이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니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등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며,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모두를 먹이고도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위세계, 유위세계를 같이 계합해서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그 뿌리, 주인공이니 그렇게만 믿고 실천행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 것인가

경남 교육연수원 지정
특수 분야 직무 연수 (2학점)

- 연수기간 :
  2018년 1월 10일 09:00
  ~ 1월 12일 17:00 (2박 3일 27시간)
  1월 18일 09:00 ~ 12:00 (3시간)
- 연수대상 (인원) : 유, 초,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명
- 연수장소 :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 연수비용 : 1인당 자비 부담액 5만원 (숙박비 없음)

나는 쉬고 싶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비움의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연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12월 8일
- 주요 강의 내용 :
  1일 :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여는 대화
  2일 : 마음의 원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3일 : 마음의 활용, 마음과 소통, 변화하는 나
- 신청문의 : 이메일, 전화로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서와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 메 일 : kmsjooin0@naver.com
  yik308@hanmail.net
- 전화문자 : 010-2529-7495
  010-7442-1586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속
치유와 힐링의 공간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2박 3일간의 마음 여행



불자 세상보기

공공미술 보호, 시민의식 발로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공공미술작품, 1995년 이후 증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설치 의무
도시 이미지 전달 수단 자리매김

관리 주체 불분명 훼손 책임 모호
공공재산이지만 훼손·방치 늘어나

공공시설 주위로 정원 조성 해법
심리적으로 접근 차단 효과 있어

'공공미술작품'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의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이 공공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9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도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예술적 대상이라는데 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미술작품은 우리가 문화적 삶을 살고, 예술적 감수성을 얻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도시의 공공공간에 세워진 미술작품은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건축물에 세워진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건축의도를 읽을 수 있는 소통수단이기도 하여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미술작품은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치에 대한 문제와 관리에 대한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도 공공미술작품의 관리에 대한 것은 지자체나 건축주가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공공미술작품의 관리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볼 때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철거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단한다. 즉,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위해가 있어도 원상회복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공공미술작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공공미술작품이 시민들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재산이며, 공공미술작품이 우리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또한, 내 것이 아니니 쉽게 대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미술작품으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접근성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잘못할 경우 미술품의 진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경계요소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법을 권해본다.

이러한 경계요소 가운데에서 공공미술품 주변으로 물이나 초화류 등을 소재로 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미술품에 대한 훼손을 방어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정원이 미술작품과 경쟁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히 미술작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려면 정원조성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지자체나 건축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원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술작품의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원자체가 공공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낸다면 정원 조성이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중앙종회 본분은 입법활동

한 해를 마감하는 제209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막을 내렸다. 11월 1일 개원해 8일까지 이어진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와 원로회의 의원 추천,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각 위원회 인사안 처리 등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중앙종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서 이월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과 연동법인 사면법 제정안, 원로회의 구성요건인 '교구별 재적승'에서 '재적승'을 삭제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비롯해 원로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한 원로의장단 임기단축 종헌개정안이 입법활동 전부였다. 결국 중앙종회의원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새롭게 내놓은 제·개정안은 없는 셈이었다. 게다가 앞서 열거한 모든 안마저 이월시켰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6월과 9월 임시회가 모두 열리지 않았다. 총무원장선거 직전인 9월 임시회는 차치하더라도 6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은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사실 6월과 9월 임시회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열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7개월간 별다른 활동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얘기가 다르다.

종헌종법특위는 이월된 종헌개정안에 대해 그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즉 종정 진제스님의 교시와 원로의원들의 당부에 따라 발의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부칙으로 1회에 한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회기서 이월됐음에도 현재까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현행 간선제의 폐단을 줄이고, 종도 의견을 반영해 여법하게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위는 5월에 간사 선출과 활동계획 논의 후 개점휴업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특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럼에도 몇몇 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 선거로 인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시곗바늘을 잠시만 앞으로 돌려보자. 불과 두 달 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임시회를 열어달라던 일부 종회의원들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무엇 때문에 제출됐던 것일까.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미흡한 선거법을 지적하며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종회의원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제35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8월부터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4개월 입법활동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선거와 입법활동은 별개인 사안이라 애당초 변명거리도 되지 않지만 말이다.

내년이라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16대 중앙종회 임기는 내년까지인 데다 정기회는 더 이상 없다. 3월 임시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15대 중앙종회는 2014년 6월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주인은 되는 방법을 찾고, 머슴은 안 되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다. 종단의 주인은 종도이고, 종도는 곧 사부대중이다. 그 중에서도 승가는 인천(人天)의 사표(師表)이자 불교를 이끄는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심점이 머슴살이해서야 되겠는가.

社說

연등회, 세계 유산 등재를 바라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과 그 환희로움을 연등 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축제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문화재청이 11월 7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서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종목으로 연등회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연등회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그 연원이 올라간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는 기록이 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를 봉행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에도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였다. 이것이 지금의 연등회로 계승됐다.

현대적 연등회는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 회향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축제이며,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불교계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형유산 대표 목록의 경우 보존 공동체의 동의와 등재 요건만 잘 갖춰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등재가 된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듯이 착실한 준비는 몇 번 강조해도 아쉽지 않다. 2020년에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군종병 홍보에 적극 나서자

조계종 군포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병무청이 그동안 병행해왔던 군종병의 특기병 선발과 자대 선발 방식을 변경, 일괄 특기병 선발로 바꾼 것이다. 불교군종병은 군법사를 대신해 법당 관리부터 집전까지 맡는 일종의 포교사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까울 정도를 넘어 심각함이 느껴진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현재 정원 대비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 되거나 경쟁률이 저조해 우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5명 정원에 2:1 수준이었던 경쟁률은 올해 미달됐다. 올해 들어 각 분기별 선발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기독교 군종병의 평균경쟁률이 2.5:1인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국방부가 2018년 필요한 군종병을 60명으로 산정, 분기당 15명을 선발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로 다가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종병의 지원율이 적은 것은 그동안 군종병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그동안 부족한대로 자대에서 군법사들이 홍보를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상황이다.

각 사찰의 불교학생회 활동저하로 인해 입대 적령기인 20대 초반 청년불자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계의 관심 부족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다.

군종병은 군 복무를 하면서도 부처님과의 불연을 이어갈 수 있는 군 보직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호국호법의 길이 펼쳐져 있다. 군포교를 담당하는 군종교구 외에 많은 불자들이 군종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권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종병은 또 다른 포교사다.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 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BTN 대표이사 서성우



현대불교 Mandala



조현춘 거사는 〈금강경〉을 보는 순간 불교에 심취했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천착했다. 그가 '가사체'를 통해 〈금강경〉을 풀이하는데 3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가사체'가 부처님 당시 설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현춘 거사가 든 〈가사체 금강경과 조계종 금강경〉이 마치 자식과 같아 보인다.

〈금강경〉 한글자씩 우리말 바꾸니 어느덧 '30년'

산문 밖의 禪 대심 조현춘 거사

'가사체' 보급의 선봉장

부처님 당시 전법 고려

이치 맞춘 것이 '가사체'

경전 독송 전 이해 필수

한문번역 오류 태반

무비 스님은 평생 스승

〈금강경〉 해설본 가져가자

격려하며 "번역하라"

감수에서 공저로 협력

"스님계셔서 신바람 나"

불교의 역사는 '역경'(易經)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전법교화와 수행정진의 밑바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또한 불교 전래 이후 꾸준히 우리 말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중 경전의 한글화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다가갈지를 드러낸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경전 한글화는 수많은 번역으로 인한 분분한 해석으로 '정설'이 없었다. 독경할 때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용어가 적절치 않아도 이른바 '그러려니' 하며 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바른 경전 읽기는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년 간 원전을 탐독, 우리 시대 말로 〈금강경〉을 풀이해 온 한 불자가 있다. 바로 가사체금강경독송회장 대심 조현춘 거사(경북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대심 조현춘 거사는 무비 스님과 〈가사체 금강경〉을 내고, 가사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가사(歌辭)는 조선 초 만들어진 3×4조나 4×4조를 기본으로 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문학으로 가사체(歌辭體)는 특유의 음률이 있는 문체를 지칭한다. 특히 조현춘 거사는 9종의 금강경을 대조, 교감해 가장 적절한 문장과 어휘, 글자를 선택하고, 이를 독송하기 좋게 가사체로 다듬어 왔다.

동양 정신유산 탐구에 청춘을

번역일은 여간 깐깐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조 거사는 번역을 하는 이들이 깐깐한 성격을 지닐 것이란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직접 만난 조 거사는 너털웃음을 자랑하는 마음 편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교수라는 권위의식을 찾기 힘들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웃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다.

조 거사는 어떻게 30년간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됐을까.

"한번은 서울시립정신병원 임상심리사로 심리치료를 하던 어느 날 지능이 아주 낮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은 환자임에도 밝고 평화스러웠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저는 힘겨움과 짜증으로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오만과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과 교수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학문에도 의문이 드는 순간 대학 지도교수셨던 이장호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동양의 정신 유산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리학에 대한 애정이 가득찬 젊은 시절 조 거사는 '동양정신이 없는 서양과학은 살벌하고, 서양과학이 없는 동양정신은 산만하다' 고 생각했다. 서양 이론인 심리학을 우리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유불도의 동양사상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조현춘 거사는 서양 상담, 심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한편, 도덕경, 논어, 천자문 등을 통한 동양사상을 닥치는 대로 탐구했다.

"기체조, 명리학 등 젊은 시절 동양사상은 모두 접했죠. 유불도를 모두 겪은 뒤 불교가 가장 고도의 논리이자 사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면 할수록 불교는 어렵기만 했어요."

조 거사는 용타 스님이 지도하는 동사섭 법회에 참석했다. 학문 만을 다뤘던 그와 스님과의 만남은 두 세계의 부딪힘이었다.

서양의 학문인 심리학을 서양의 시각으로 공부했지만 동양적인 시각을 담아야 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조 거사는 국내외의 상담기법을 우리의 정서에 맞도록 새로운 방법의 상담기법으로 만들어보았다. 4박 5일간의 과정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그 틀이 만들어 졌다. 1992년 1월, 9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가자들의 반응에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결국 심리상담이 기여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생각에 '행복훈련'으로 이름 붙였어요. 각계 각층이 참여한 행복훈련의 성과를 정리하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치료가 오래 지속되는 방법은 없을까란 것이었죠."

근원적인 해결방법에 고뇌가 깊어갈 때 누군가 그에게 〈금강경〉을 보라고 했다. 동양사상을 알고자 닥치는대로 유불도의 각종 서적을 읽어 갈 때였다.

"수백 번 읽고 독송하는 동안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자신을 다르게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풀이된 〈금강경〉이 영 낯선 것이었습니다. 교수인 저 마저 한글로 읽는 것이 한문으로 읽는 것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니 문제였죠."

'왜 요즘 우리 말로 된 〈금강경〉이 없을까' 란 화두가 생겨난 순간이었다. 그는 〈금강경〉을 제대로 읽고 싶었다. 그래야 수십년간 공부해온 심리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비 스님의 격려, 또 다른 날개를 달다

처음에는 혼자 〈금강경〉을 읽고 앞뒤말을 연결하며 해석해 나갔다. 영어로 된 〈금강경〉과 산스크리트본도 구하고 사전도 구해 대조하며 다시 번역했다.

조 거사는 타종교인과 심리학 전공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공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함께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1996년 조직된 이 모임은 서양사상과 불교사상을 비교하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교수들의 계속되는 공부자리다. 학자 10여 명이 모여 경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날에도 의문이 남으면 서로 토론하니 그 진지함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학자들의 모임이어서 그런지 한자 한자 치밀함의 극치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며 그 뜻을 밝혔다. 경전 한 줄의 해석을 놓고 몇일 논쟁을 벌이기도 수차례 였다. 서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같이 고민도 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다.

평소 108배와 수행정진을 해왔지만 제대로 공부하려 하자 이른바 겉핥기식 공부였다. 신심보다는 철학적 접근이었다.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보다. 조 거사는 자신의 공부 방향을 누군가 점검해주길 바라고 주변에 스님을 수소문했다.

당연히 대강백인 무비 스님에 대한 추천의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냥 찾아갈 수는 없었다. 무비 스님의 〈금강경 오가해〉를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금강경을 현대어로 바꾼 뒤에 스님을 찾아뵙겠다는 생각을 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파사무용단 2017 '버려야할 것들' 공연

B6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미이데라와 이시야마데라

합송 쉬운 가사체, 불교 전법에 '딱!'



조현춘 거사는 부처님 당시의 설법과 같이 육하원칙에 맞춰 각 불교경전을 새롭게 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야 함을 역설했다.



무비 스님은 스승이자 도반으로 큰 힘이 됐다.



조현춘 거사는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 회장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대심 조현춘 거사는?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 조현춘 거사의 법명은 의 법명은 대심(大心). '동서양 통합 상담심리학'을 세우기 위해 금강경 공부를 시작해 30여년 교수생활 중에 계속 '불교경전과 상담심리학'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다.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법륜불자교수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회, 대한문학치료학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현춘 거사' B1면에서 계속

조 거사는 2년 후 나름대로 자신이 정리한 〈금강경〉 해석본을 가지고 무비 스님을 찾았다.

조 거사에 따르면 당시 무비 스님은 법거량을 해보자며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때였다고 한다. 아무런 인연 없이 조 거사가 〈금강경〉 해석본을 들고 찾아가니 놀랄 일이었다. 조 거사는 조용히 해석본을 놓고 스님의 방문을 닫고 나왔다.

3주 후 다시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조 거사를 불러 말했다.

"경전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 말로 펴내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조 거사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세요."

스님은 너무도 친절히 〈금강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스님의 번역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스님은 뜻밖에도 좋아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스님의 독려에 조 거사의 원력은 배가 됐고, 그 때부터 무비 스님은 조 거사에게 가장 친절하고 든든한 스승이요, 감수자가 됐다.

"스님이 뒤에 딱 계시니 어깨가 으쓱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학자인 제가 공부한 것을 인정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주시니 신바람이 저절로 났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하고 스님께 점검받는 심부름만 했을 뿐, 다른 학자분들이 모두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지요. 〈반야심경〉만 해도 몇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15번이나 연구, 점검을 해도 다시 토론이었죠. 모임에서 일차로 점검을 하면 이제 무비 스님께 가지고 갔지요. 스님과도 한바탕 담판이었습니다. 꼬박 4시간 가량을 자세 한번 흩트리지 않고 점검 하신 적도 있으세요."

심리학 애정에 불교 공부

"학문 알기전 동양사상 알라"

지도교수 가르침에 불교 관심

〈금강경〉 접하고 매료, 연구

'행복훈련' 서 번뇌해답 찾아

학자 모임 조성 '절차탁마'

불교 관심있는 학자 모아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함께 불교경전 번역 진행

무비 스님도 이런 과정을 알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번역물을 믿고 맡기게 됐고 감수역을 맡았던 무비 스님은 조 거사와 함께 공저도 하게 됐다.

경전 번역의 중요한 원칙은? '순리'

조 거사는 요즘도 〈금강경〉과 하루 8시간 이상 씨름한다. 번역보다 수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한다.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이 되려면,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 주고, 이 모든 중생들을 모두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가이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은 언제 읽어도 환희심이 납니다."

이런 신심이 있기에 조 거사는 〈금강경〉 번역에 있어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다. 바로 부처님 당시 상황과 맞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다.

"경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경전이 설해지는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첫번째 원칙입니다.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정황으로 이를 풀이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보다 40년 연장자입니다. 과연 부처님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했을까요?"

여기서 육하원칙인 육성취(경전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원칙)로 번역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우리 말이 지닌 고유한 리듬감을 살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경전의 흐름을 정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생략한채 부처님이 그냥 가르침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 '여시아문' 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를 당연히 풀어냈겠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계종의 표준 금강경과 대조해, 한문 및 우리말 번역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였다.

일단 〈구마라집 금강경〉을 1차 저본으로, 범본, 보리유지본, 진제본, 달마급다본, 현장본, 의정본, 티베트어본, 몽고본 등을 참고해 현재 조계종에서 표준본으로 제시한 한문에서 약 500여 자를 수정 보완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분의 1에 달한다.

조 거사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명호 만을 염하기보다는 〈관음경〉이나 〈아미타경〉 독송을 통해 불교를 먼저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경전 독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니 근원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저 깊고 깊은 곳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 갖고 있는 모든 지혜가 한방울의 물이라면, 그 빛의 크기는 바다보다도 더 큽니다."

2012년 가사체 한글금강경을 펴낸 그는 2015년 가사체 한글금강경과 교감본 한문 금강경을 발간했다. 가사체의 특징인 운율을 살려 음반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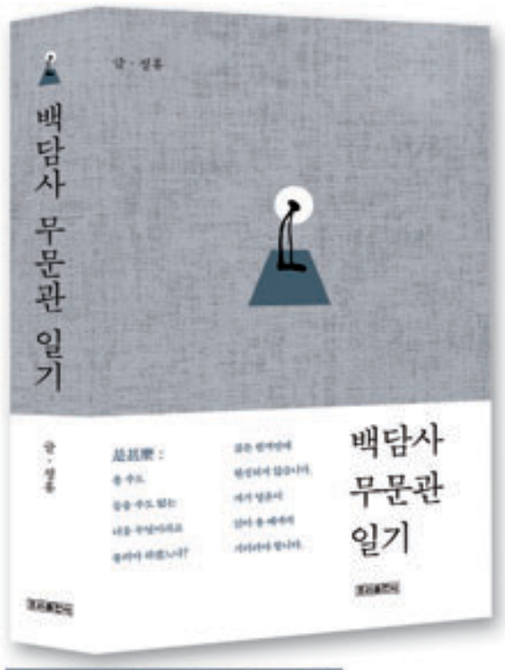
"남은 과제는 보다 많은 이들이 가사체 금강경을 접하는 겁니다. 대중이 함께 운율이 섞인 가사체를 독송하며 신심을 증장하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조 거사는 오늘도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허허허' 웃음을 지으며,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대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錄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절수행 중심은 호흡' … 복식호흡 필요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㉒ 건강과 10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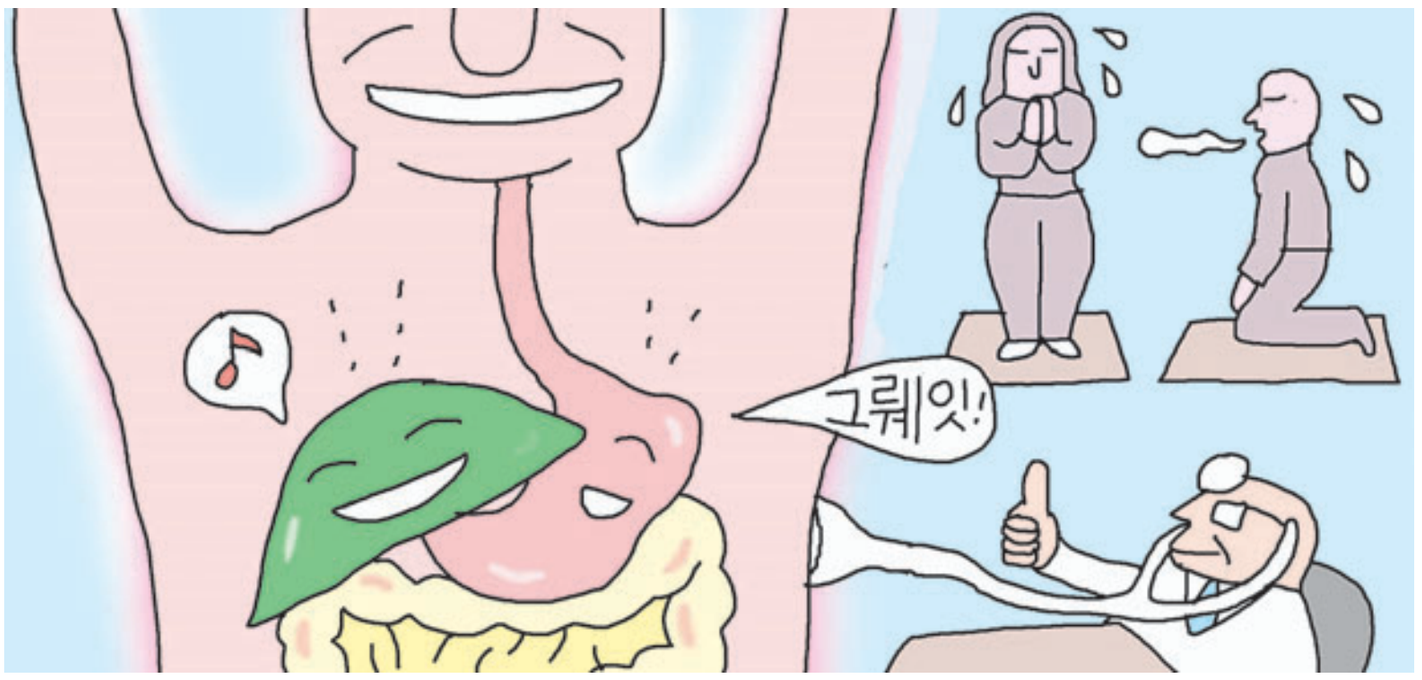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지난 주말, 선배 도반의 집들이에 초대되어 몇 사람이 모였다. 남산 타워가 가까이 보이고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여 가슴이 툭 트이는 느낌이 드는 집이었다. 눈이 오는 날은 저절로 한 폭의 풍경화가 될 것 같은 운치 있는 집에서 주인을 포함 여섯 명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화제가 자연스레 건강 이야기로 옮아갔다.

공교롭게도 여섯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이 암이라는 병과 싸웠거나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중 세 명에 한 명 꼴로 암환자라는 통계수치가 과장이 아님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발병 후 치료를 하면서 108배를 해 건강을 되찾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두 사람은 108배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다. 한 사람은 발바닥이, 한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쉬고 있는데, 어쨌든 네 사람 모두 108배를 했다는 것은 건강회복에 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나의 경우 100일 동안 1080배를 하고 나서 수 년 간 앓던 고질적인 만성기관지염이 저절로 나은 경험이 있다. 위하수로 인해 소화가 잘 안되던 증세와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글을 쓰는 직업병으로 인해 생긴 등과 어깨의 근육통도 많이 해소되었다. 특별히 하는 운동 없이 지금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108배를 지속해온 덕분이라 확신하고 있다.

108배의 복식호흡이 건강의 관건

108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절 자세와 호흡법이다. 중요한 만큼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나는 처음 절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호흡에 신경을 쓴 적이 없다. 가슴이 아닌 배로 호흡을 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도 훗날 알았을 만큼 호흡법에 문외한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절을 했기에 저절로 복식호흡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절을 하면 저절로 복식호흡이 되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입을 다물고 양발과 무릎을 붙이고 허리와 가슴, 어깨를 펴며 일어서면 저절로 숨이 코로 들어와 아랫배로 단전호흡이 된다. 다시 기마자세로 무릎을 꿇을 때 코로 숨이 들어오면 평상시보다 폐활량이 30% 정도 커진 상태의 들숨이 되는데 이때 무의식중에 저절로 복식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머리가 닿기 직전부터 입으로 숨을 뱉으며 접족례를 하고 다시 손 짚고 앞으로 나갔다가 엉덩이를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발가락을 꺾고 허리를 완전히 펴기 전까지 입으로 숨을 가늘고 길고 부드럽게 고요하게 내쉴 때 다시 복식호흡이 된다. 절수행의 전문가 청견스님은 '호흡이 생명의 중심'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수행도 숨이 맞지 않으면 힘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복식호흡이라고 주장한다. 배꼽 아래 치골 부분까지 숨이 저절로 내려오게 해야 제대로 된 108배 절 수행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절을 해보면 단전보다 훨씬 아래로 숨이 내려간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면 횡경막의 윗부분인 가슴, 심장, 어깨, 폐, 목, 얼굴, 머리에는 압력이 낮아지고, 횡경막 아랫부분인 배에는 압력이 가해져 위, 장, 간, 쓸개, 지라, 신장, 허리, 골반, 엉덩이, 다리, 발에 혈액이 잘 돌고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심신이 건강해진다."

전체적인 동작에 숨을 정확히 대입하는 일이 중요하고,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서 있는 상태에서 호흡과 맥박을 고르라고 청견스님은 조언했다.

복식호흡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물의 기운이 올라가 머리가 차고 열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아래가 따뜻해진다. 절 동작을 시작할 때부터 복식으로 호흡을 이끌어냄으로써 뇌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내장에도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진다. 이를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선 이를 건강의 척도로 삼을 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수승화강은 뜨거운 기운은 내려오고 찬 기운은 올라가서 머리는 차고 배는 따뜻해지는 것을 말한다. 수승화강이 되면 오장육부에서 혈액과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이뤄지면 몸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수승화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기병, 화병, 피로 등이 생기고 눈동자가 불안해 눈을 자주 깜박거리게 된다고 한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졸리며 감기에 자주 걸린다. 손발과 무릎, 허리와 배 등이 차가워지면 불면증, 우울감, 노이로제와 당뇨, 소화불량,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호흡에 맞추어 절을 하다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단전호흡이 이루어져 열이 생기면서 손발과 무릎, 허리와 배 등 몸이 골고루 따뜻해지면서 입에서는 단침이 나오고 정수리가 시원해지며 눈빛이 맑아진다.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눈빛이 맑다. 절을 해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에 노출되지 않고 잠시 병에 걸린다고 해도 곧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108배, 폐활량 증가 이끌어
혈액 순환 및 근력 강화도
꾸준한 수행은 최고의 운동

스트레스나 화병을 다스리려면 머리는 차게, 단전은 덥게 해주어야 한다. 천천히 경건하게 절을 하다보면 호흡도 절로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수승화강이 되기 때문이다. 절을 급하게 하거나 유난히 잡생각이 많이 나는 날은 영락없이 머리와 목이 무겁고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

절을 하면서 자연히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일상에서도 바른 호흡을 하게 되어 머리는 시원하고 청량하며 배와 발은 따뜻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바른 호흡은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키우는데, 집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체에 면역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절을 해서 잡생각이 없어지면 인체에서 자연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절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집중력으로 인한 이 힘 때문이다. 호흡은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키운다.

108배로 난소암을 극복한 도반 이야기

108배는 근육운동과 유산소운동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말한다. 얼핏 보면 절을 하는 동작이 단순한 운동 같아 보이지만 목과 골반, 허리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게 해준다. 머리에서 다리까지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좋은 것이다. 합장하는 자세만으로도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대부분 근육이 뭉쳐있어서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다. 근육이 뭉친 것이 만성화되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과로 등으로 인해 근육이 긴장되면 그 안을 흐르는 혈관의 탄력성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혈액이 담당하는 산소와 영양분 및 면역물질의 수송이 원활하지 못하여 근육과는 무관해 보이는 질병까지 부른다고 한다.

"108배는 유려한 연속동작을 통해 그 어떤 운동보다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침을 놓거나 마사지를 통해 개개의 경락을 자극할 수 있어도 108배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몸과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운동은 없다. 기혈의 흐름이 바로 잡히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안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서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된다. 인체내의 361혈과 14경맥이 절을 할 때마다 적절히 자극된다.108배는 우리의 근육 하나하나가 깨어나고 강화되어 우리 몸을 각종 근골격계통의 질환으로부터 튼튼히 지켜내게 한다."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펴낸 한의사 김재성 씨 말이다.

선배의 집들이에 함께 했던 50대 후반의 김지영 씨는 최근, 근육량을 체크해주던 딸로부터 근육량이 정상으로 나왔다며 그동안 무슨 운동을 했느냐는 물음을 받으면서, 지난 여름 100일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절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10년 전, 난소암 발병 후 수술과정에서 대동맥 파열이 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절을 시작한 도반이다. 투병이 시작되면서 우연히 얻게 된 관세음보살 사진 한 장의 인연으로 불교를 만나고,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찾았는데, 그곳 스님께서는 별 말 없이 '그냥 절만 하라'고 했다. 매일 절에 가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 절을 계속하다보니 하루 300배도하고 500배도 하게 됐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 생각하며 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틈만 나면 절을 했다. 운동이라곤 숨쉬기운동 말고는 해본 것이 없는 그녀에게 108배는 좋은 운동이 되어주었다. 회복기간 동안 특별한 운동이나 치료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바싹 말랐던 몸에 살이 오르고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절을 하다 보니 병이 걸린 탓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남편을 비롯한 시댁식구들, 그리고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탓하고 원망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그러나 절을 하다 보니 참회가 되면서 자신이 빳빳하게 세웠던 고집이 스스로를 아프게 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심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며 서서히 108배가 운동이 아닌 감사기도가 되었다. 저절로 '감사합니다' 하며 절을 하게 된 것이다. 대동맥 파열로 배가 부풀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삶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가족들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그러나 인생을 너무 헛살고 가는구나 하는 회한이 들어 다시 삶이 주어지면 열심히 인생 공부를 하리라 다짐했다. 그 후 10년 간 불교공부를 시작으로 사회와 인생 공부를 열심히 하며 10여 개의 자격증을 땄다. 108배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은 벅찬 감동을 알차게 삶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이다. 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 내 수고를 통해 업을 녹일 때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지금도 그녀는 꾸준히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주변에 감사한 분들을 위한 '108명 기도'를 하는데 평소엔 그분들 이름만 불러주며 축원을 하는데, 108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날은 그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절을 하기도 한다. 건강과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열흘이나 21일기도 등 기일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백일 동안 1080배, 혹은 3000배를 시켰다고 한다. 수많은 효능을 지닌 108배였을 테니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암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청견스님을 찾아온 10만 명의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병이 어지간히 낫게 되면 슬그머니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해서 다시 발병하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게 청견 스님의 말씀이다.

모든 일은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할 때 공덕이 된다. 투병중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운동삼아 평생 108배를 계속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면 남은 시간, 건강한 삶을 보장받지 않을까 싶다.

지난 21회 '한 달에 한 번 만배를 한다는 혜안 성보살님…' 내용 중에서 만배를 3000배로 바로잡습니다.

"가야기획에서 만드는 도서출판 하이의 불교서적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전문성을 가진 책입니다!"

작명록은 (한국 278성씨 , 성씨별로 완벽하게 작명한 이름 6,065,726개를 음양,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수리오행에 모두 맞게 지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新사주연구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책 | 저자:지안스님



프랭크 영어 이름
*작명록(上 · 下) 구입시 무료 증정합니다.



작명록(上 · 下)
완벽하게 좋은 이름짓는 책 | 저자:지안스님



불교 의식 시리즈(1~5)
불교 의식에 "꼭" 필요한 책 | 저자:지안스님

가야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B동 433호 | 전화 02)379-2400 | 팩스 02)379-2401 | gaya2400@nate.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8~2017.1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스스로 강해지길 게을리하지 마라”

자강

송석구 지음 | 한스컨텐츠 펴냄 | 1만 5천원





동료에게 보낸 〈벽운편지〉 글 묶어
현자들의 책서 좋은 문구 발췌 소개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천행건 군자이자강불식)〉에서 비롯됐다. 의미는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자강하는 사람은 건실한 천체의 운행을 본받아 더 강해지기 위해서 힘써 스스로 노력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삿된 욕망을 이겨내고 어제보다 더 강해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 독립적인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이다. 즉,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강해지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가 바로 군자다.

2014년 7월말, 동국대 교수와 총장을 지낸 저자 송석구 삼성꿈 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취임 후 매주 월요일마다 〈벽운편지〉란 이름으로 젊은 동료들에게 편지글을 보냈다. 위 내용과 같이 동서고금 현자들의 책에서 좋은 문구를 발췌한 뒤 저자의 생각을 부연해 주석을 달아 직원들과의 회의뒤에 들려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 못한 직원들도 언제든 접할 수 있도록 삼성꿈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벽운의 편지〉란 이름으로 매주 기록을 올렸다. 이번 책 〈자강〉은 바로 이 글들을 한데 모아 묶은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수년간 쌓인 이 편지글들을 통해 내가 가장 말하고 싶던 내용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라며 “물론 우리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메시지도 빠뜨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편지글 내용은 현자들의 주옥같은 교훈을 쉽게 풀어서 들려준다. 이 모두가 행복, 자기계발, 수양, 근신, 인간관계 등의 영역서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촌철살인의 메시지들이다. 책 제목 ‘자강’ 역시 주역의 ‘자강불식(自强不息)’서 따왔다.

저자에 따르면 자강은 스스로 독립적인 힘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는 말로도 쓰이며, 그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말로도 사용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강해지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조언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자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느 좋은 때를 기약해 오늘 나의 허물을 바로 잡기를 미루지 말고, 어느 먼 미래를 위해 오늘 행복해지기를 미루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길이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강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책은 크게 4부에 걸쳐 88편의 주제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기〉, 2부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3부는 〈스스로 지혜롭게 깨어있기〉, 4부는 〈소중한 인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등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송석구 이사장**은?

충남 대전 출생으로 동국대 · 동덕여대 · 가천의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동국대서 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평생 교육계에 종사했다. 교단에서는 율곡을 비롯한 한국철학을 주로 강의했고, 율곡에 관한 다수의 저술을 발표한, 국내 대표적인 율곡 전문가다. 율곡학회가 제정한 ‘제2회 율곡학술대상’(2000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불교와 유교〉 〈한국의 유불사상〉 〈율곡의 철학사상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해왔다.

책속의 밑줄 긋기

▲“지금 이 순간은 생에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에 단 한 번의 인연이다. 이것이 바로 일기일회이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삶이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순간순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책에 담긴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런 것이다. 삶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장자의 〈남화경(南華經)〉인데 그 첫 장의 내용이 ‘소요유(逍遙遊)’이다. 이는 바라는 것 없이 노닌다는 뜻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연과 일치가 돼서 노는 것이다. 장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소요유를 시작한다.”

▲“인격의 완성이란 대체로 슬기로움과 어짐과 용기, ‘지인용(知仁勇)’ 세 가지의 덕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떤 때에도 통하는 세 가지 덕목이라 하여 ‘삼달덕(三達德)’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관련해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왈 지자불혹(子曰知者不惑)하고 인자불우(仁者不憂)하니 용자불구(勇者不懼)라.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업이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즉, 고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은 곧 무명(無明)이다. 무명은 밝지 못한 혼란의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선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고요한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이 곧 지혜이다.”

법멸 암흑기 부른 ‘대공의 난’ 소설로 최초 조명

대공의 난

정의성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2만 2천원



불법이 꽃피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 소설은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삼국유사의 불교관을 토대로 삼국사기, 신당서, 구당서, 책부원귀,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화랑세기 등등의 사료에 근거해 쓰였다. 특히 소설에 나오는 불교용어를 포함한 신라시대 당시의 용어와 배경을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저자는 “소설 본연의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가볍고 재미나게 읽으려는 독자들에게는 사족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그 픽션의 박진감을 느끼기 위해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본다. 충담이 기파의 가슴서 천을 들어내자, 벌어진 기파의 상처 사이사이로 피가 다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스님은 곱게 빻아진 뼛가루를 숟가락으로 떠서 기파의 상처 속에 꼼꼼히 뿌려 넣었다. 그러자 뼛가루가 상처에 녹아들면서 신기하게 피가 멎기 시작했다.

“저는 출가 전 어린 시절에 사냥을 좋아해서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또 제가 쏜 화살에 상처 입은 짐승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가지고 노는 잔인한 행동도 즐겨 했지요… 추수가 끝난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냥을 나가는데 논둑 가에 있는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마구 울어대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개구리를 모조리 잡아 버드나무가지에 꿰어버렸지요. 서른 마리쯤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꿰어져 버둥거리는 개구리들을 가지고 놀다가 싫증이 나서 그대로 연못 속에 던져버리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저는 사냥을 하러 다시 그 논둑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예전에 장난쳤던 개구리들이 생각나서 연못에 가보니… 글쎄, 개구리 서른 마리가 버드나무가지에 꿰인 채 그때까지 살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인해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지냈을 개구리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제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공이 순식간에 몸을 밀어 넣으며 소도로 융의 검을 내리누르는 동시에 머리위에 든 대도를 내려베었다. 융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대도가 아슬아슬하게 허공을 갈랐다. 대공은 그치지 않고 전진하며 쌍도를 연속으로 뻗어 융의 몸통을 찔러 들어갔다. 하지만 융이 그때마다 뒤로 물러나며 다막검을 중심에 놓고, 들어오는 칼날을 살짝 살짝 옆으로 걷어내는 바람에, 대공의 공격은 매번 손가락 한마디 정도 좌우로 빗나가고 말았다. 대공이 다시 몸을 밀어 넣으며 대도로 융의 목을 찔러 들어가는 순간, 융의 다막검이 대공의 대도를 비비듯 스치면서 중심을 빼앗아 비껴내고 대공의 목을 되찔러 들어갔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반격에 화들짝 놀란 대공이 황급히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가까스로 칼날을 피했으나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 버렸다.

만월은 말을 멈추고서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고는 강둑에 앉아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기파도 그 옆에 앉아 만월의 시선을 따라 흐르는 강물을 응시했다. 강물은 누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석양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고, 간혹 물고기가 퐁당 튀어 올랐다. 한동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강물만을 응시하던 만월은 가만히 기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문두루비법은 불력이 대단한 고승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펼쳤다간 목숨을 잃게 되어 있어. 언덕을 만들려면 다른 땅의 흙을 퍼 옮겨야 하듯이, 비법이 시전되면 시전자의 법력이 빠른 속도로 소모되게 되어있느니라. 일단 비법이 시작되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을뿐더러, 법력이 바닥나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불력이 대단히 충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죽게 되느니라. 사조께서는 세월이 지날수록 승려들의 법력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당신 이후로 비법을 감당해낼 만한 승려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걸 염려하셨느니라.”

불교TV 대표이사 석성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한다”며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여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1-12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A5양장/396쪽/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A5양장/504쪽/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A5양장/396쪽/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A5양장/424쪽/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A5양장/416쪽/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A5양장/348쪽/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A5양장/300쪽/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A5양장/326쪽/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A5양장/388쪽/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A5양장/376쪽/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A5양장/376쪽/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학술연찬회
주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일시: 11월 18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권석만 외 집필/신국판양장/416쪽/22,000원

물질적 소유는 행복의 충분조건인가?

물신주의와 배금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소유는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인가? 초기불교와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에서 바라본 소유의 본질과 전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찰!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현대인 貪·瞋·癡, 몸짓으로 치유

파사무용단 2017 '버려야할 것들' 공연

현대사회의 '욕망'에 대한 성찰과 해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불자 무용단의 무대가 막이 오른다.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은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제3회 '버려야 할 것들'을 공연한다. 2015년 초연한 '붓다 이야기 첫 번째: 버려야 할 것들…'에 이어 더욱 탄탄한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버려야 할 것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살인, 묻지마 폭행, 성폭행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건을 불교적으로 고찰한다. 그 원인을 탐욕(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에(노여움), 우치(어리석음)에서 찾고 이 탐진치 3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를 춤으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은 2015년 대한민국 무용대상에서는 단체부문 베스트 7로 선정됐으며 2016년 재창작되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과 2017년 예술창작지업사업으로 꼽히는 등 현대무용계의 대표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난해하게 여겨지는 현대무용의 벽을 낮춰 미술과 음악, 문학의 폭넓은 장르로 소개하는 것이 파사무용단의 특징. 특히 이번 공연은 초연에 비해 옴니버스 형식과 전막 라이브 음악으로 진행돼 더욱 탄탄해진 구성을 자랑한다.

공연은 '나'라는 존재가 몸을 인식하며 분별을 시작하는 프롤로그 '존재'로 시작한다. 이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씬1 '집착', 증

오는 11월 21~22일 강동아트센터
삼독심 끊어내는 수행 과정 표현
옴니버스 구성, 라이브음악 눈길

폭되는 나의 분노로 어리석음의 수렁에 빠지는 씬2 '고해', 삼독을 끊는 마음자리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씬3 '절연', 그리고 삼독을 끊고 자연의 순리에 합일, 지혜의 눈을 갖춘 에필로그 '극락'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시각의 무대기법과 철학적 움직임의 해석을 관객들과 대화를 통해 나눌 예정이다.


파사무용단의 공연 모습. 파사무용단은 인간 내면의 고뇌를 불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표현한 공연으로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황미숙 파사무용단장은 "3독을 버림으로써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진짜 '나'의 내면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나'라는 존재의 자아를 찾길 소원하며 이번 작품 안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이어 "관객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는 현대인이 꼭 봐야하는 필수 인문학적 작품"이라며 "무거운 주제를 순리와 인연이라는 고리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소매를 나부끼며 춤추는 모양을 표현한 '파사'로 이름 붙여진 파사무용단은 불자 무용가 및 촬영팀으로 구성된 현대무용전문단체로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불교적 소재를 활용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매년 불교와 환경, 청소년을 주제로 한 공연을 무대로 올리고 있으며, 2014년 무용계 최초로 조계종이 인증하는 불교문화단체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방암 의식 향상 재즈 콘서트 열린다

BTN 붓다회, 핑크리본 콘서트

유방암 의식 향상을 위한 콘서트가 불교계 최초로 열린다.

BTN붓다회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 조계사 마당에서 시민 및 불자들의 유방암 의식향상을 위한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핑크리본 재즈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재즈가수 웅산과 국악인 전영랑,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하며 운성스님이 진행을 맡아 유방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행동실천의 중요성을 나누는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는 3시에 열리는 재즈콘서트 뿐만 아니라 콘서트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조계사 마당에서 BTN붓다회를 비롯한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하는 핑크아카데미와 핑크투어를 통해 유방암 예방 및 유방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가진단방법 알기 등 다양한 강좌를 즐겁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한다.

BTN 구본일 대표이사는 "1년 전 BTN붓다회가 출범한 이래로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방송포교의 큰 원력에 동참해주셨다"면서 "이번 행사는 BTN붓다회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캠페인으로 BTN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렌즈에 담은 사찰 문살의 아름다움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
2번째 사진전 개최

전국 사찰 꽃살문들 촬영
수익금 전액 장학금 기부


송미숙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 회원이 전시하는 강화 정수사 대웅보전 통판투조 꽃살문.

사찰은 문도 특별하다. 연꽃, 매화, 국화, 모란 등 꽃들로 장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찰의 문을 '꽃살문'이라고 한다. 카메라 렌즈에 아름답게 장엄된 꽃살문을 담아낸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회장 도진)은 11월 11일부터 16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제선센터와 양천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되는 전시회의 주제는 '마음으로 보는 사찰의 문살'이다.

전시회는 20명의 회원들이 전국 사찰을 다니며 촬영한 문살의 사진 40여 점으로 채워진다. 부산 범어사부터 합천 해인사, 속초 신흥사, 양평 용화사 등 명찰 전각의 꽃살문들을 보고 있으면 화엄세계를 마주하는 것 같다.

동우회 회장 도진 스님은 "여러 사찰의 다양한 문살을 촬영하는데 공간·시간적 제약이 많았지만, 좋은 사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동우회는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더 좋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법당의 문은 미혹한 중생 세계와 환희로 가득찬 부처님의 세계를 이어주는 경계"라면서 "전국 산사를 다니며 애쓴 마음이 고스란히 압축돼 사진에 담겼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따스한 여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선센터 사진동우회 인연의 사진전 수익금은 전액 국제선센터 장학회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 목판화 작가를 찾습니다

원주 고판화博, 제5회 전통 판화 공모전

국내 유일 목판화 공모전
11월 28일~12월 3일 접수

전통 목판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은 국내 유일의 전국 규모 목판화 공모전인 '제5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2017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11월29일~12월3일 작품을 접수받는다.

전통판화·창작판화·생활판화 분야에 걸쳐 작품 공모를 진행하며 작가·비작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생활판화 분야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이 운영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인 전통판화학교 수강생들과 문화부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고인쇄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일반인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상에 문화재청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에 강원도 도지사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 원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특별상 5명에게는 고판화박물관장상과 상금 3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12월 11일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들은 박물관 내 특별 전시실에서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관장 선학 스님은 "팔만대장경 등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문화를 이룩했던 선조들의 기량을 이어받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판화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판각술을 복원하고자 2013년부터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8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불교 명사가 전하는 '아름다운 죽음과 생명'

장기기증원, 4주간 시민강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사장 조원현)은 11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회의장서 '2017 생생문화포럼 시민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총 4회 강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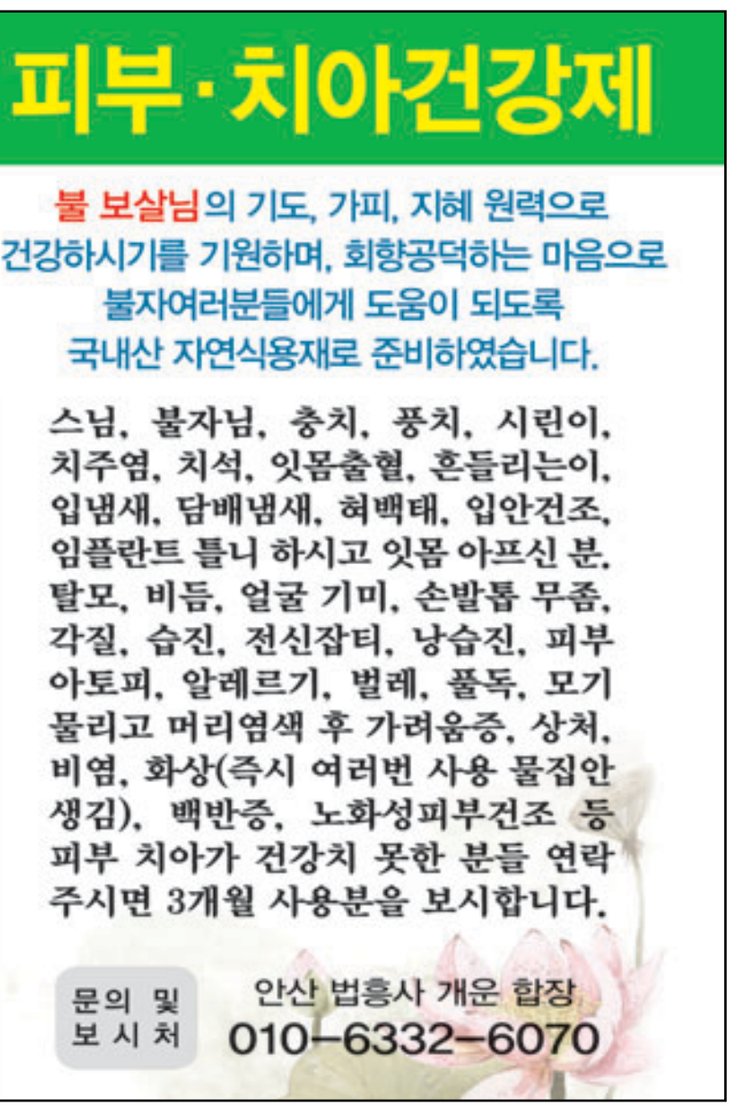
17일 첫 강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즐기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호스피스병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목숨'의 이창재 감독이 나선다.

24일에는 수의학자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생태적 사유와 생명의 의미'를 주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삶의 주인으로서 생명의식을 갖도록 조언한다. (02) 542-5635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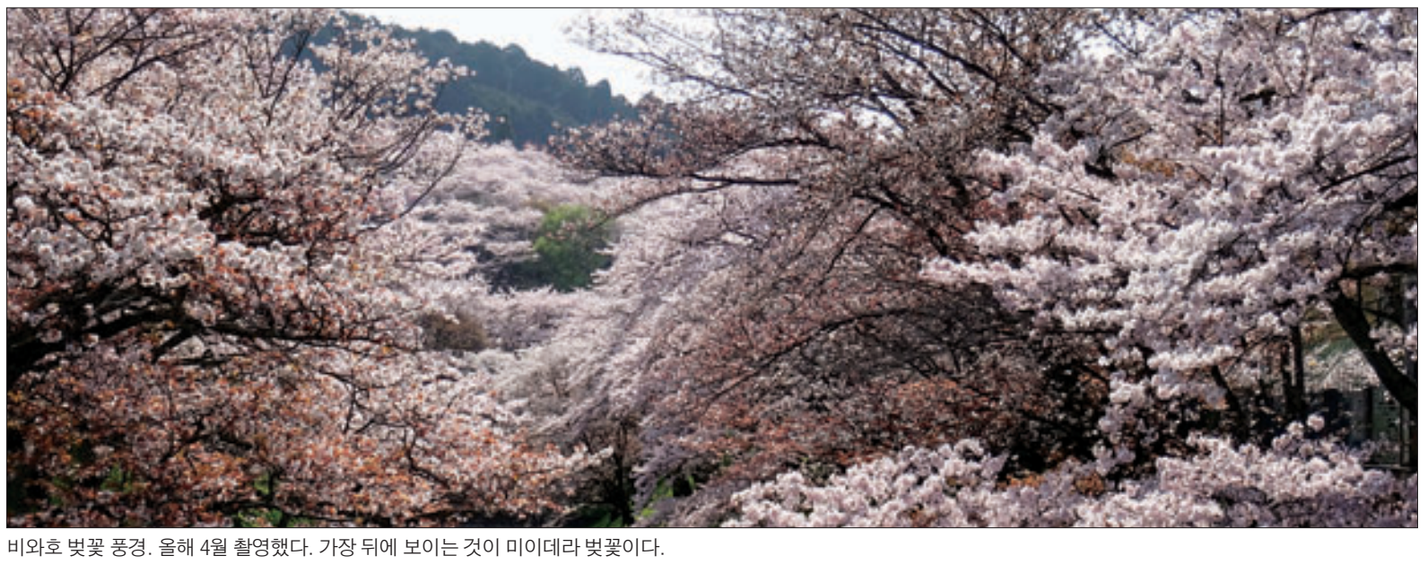




호수·꽃이 아름다운 숨겨진 名刹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㉑ 미이데라와 이시야마데라


비와호 벚꽃 풍경. 올해 4월 촬영했다. 가장 뒤에 보이는 것이 미이데라 벚꽃이다.

비와호 인근의 三井寺와 石山寺
외국인에겐 알려지지 않은 고찰
三井寺, 헤이안 4대 사찰로 유명
관음 도량으로 사랑받는 石山寺

미이데라(三井寺)

올해 4월 약 20년 만에 시가현 오쓰시(大津市)에 있는 미이데라로 요자쿠라(夜櫻, 벚꽃 야간 구경)를 보러 갔다. 요자쿠라라고 하면 교토 시내의 기요미즈데라, 마루야마(円山)공원 등 유명한 곳이 있지만, 미이데라에서 보는 요자쿠라는 교토 시내보다 빛이 어두워서 그런지 벚꽃이 더 선명하게 보여 교토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미이데라는 내가 지금까지 소개해온 나라나 교토에 있는 사찰처럼 외국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이데라는 헤이안 시대에 도다이지, 고후쿠지, 엔랴쿠지(延暦寺)와 함께 조정으로부터 숭배 받은 '사대사(四大寺)'의 하나로 꼽히는 역사가 있는 명찰이다.

비와호(琵琶湖) 남서쪽에 있는 나가라산(長等山) 중턱에 자리 잡은 미이데라의 정식 명칭이 '나가라산 온조지(園城寺)'라고 한다. 사찰 창건은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667년 수도를 아스카에서 현재 시가현인 오미(近江)로 옮겨 다음 해에 즉위한 덴지(天智) 천황이 세상을 떠난 후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천황의 아들인 오토모노오지(大友皇子)와 천황의 동생 사이에 싸움이 생겨 진신의 난(壬申の亂)이라는 큰 전란이 발생했다. 패배한 오토모노오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전원 성읍(田園城邑)'을 기부하여 사찰을 창건했다. 승리한 덴지 천황의 동생이 덴무(天武) 천황이 되고, 전원 성읍의 한자를 따서 '온조(園城)'라고 쓰인 칙액을 하사했다. 그것이 미이데라의 시작이다. 사찰에는 덴지, 덴무, 지토(持統) 천황 3명이 태어났을 때 목욕물로 사용한 물을 푼 우물이 있어서 '미이노데라'(御井の寺)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미이데라가 사대사로 꼽힐 만큼 큰 사찰이 된 것은 명승 지쇼대사(智証大師) 엔친(円珍, 814~891)이 미이데라를 천태별원(天台別院)으로 재건해 밀교 도량으로 만든 이후부터이다. 엔친의 어머님이 도지(東寺)를 소개할 때 등장했던 명승 구카이(空海)의 조카딸이다. 엔친이 15세 때 엔랴쿠지에서 수행을 시작해 19세 때 정식적인 승려가 되기 위한 국가에서 실시한 시험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고 다음해 정식 승려가 되었다. 853년에서 858년까지 당나라에서 밀교를 배우고 귀국한 후에 온조지를 재건했다. 엔친이 천황 3명이 태어났을 때 목욕물로 사용한 우물의 물을 삼부관정(三部灌頂)이라고 하여 법의(法儀)를 할 때 법수(法水)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찰이 미이데라라고 불리게 되었다. 엔친이 천태종 최고 지위인 제 5대 천태좌주(天台座主)가 되고 일본 불교 발전에 평생 힘을 썼다. 제자도 많이 키웠다. 입적한 후는 천황에게서 지쇼(智証)라는 대사호(大師號)를 받았다.

천태좌주 제 3대이고 엔랴쿠지 융성의 기초를 쌓은 엔닌(円仁, 794-864)스님도 제자를 많이 키웠다. 엔친 제자들과 엔닌 제자들이 천태종의 2대(大) 세력이 되었다. 엔친, 엔닌 사후는 제자들이 대립하게 되어 10세기 말엔 엔친 제자들이 다 엔랴쿠지를 떠나 미이데라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엔랴쿠지는 산몬파(山門派), 미이데라는 지몬파(寺門派)로, 천태종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두 갈래의 갈등이 천태종 내부의 싸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으로 영향도 커서 미이데라가 불타버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데라는 조정이나 귀족, 무가(武家) 등의 깊은 귀의를 받고 피해를 입을 때마다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났다. 메이지 유신으로 사찰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많은 문화재, 넓은 사역으로 현재도 깊은 역사가 있는 사찰인 것을 느끼게 한다.

미이데라 범종

미이데라가 소유하는 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내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세 개의 범종이다. 하나는 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흠이 있는 범종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이데라 지몬파와 엔랴쿠지 산몬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벤케이(弁慶)라는 엔랴쿠지의 승병(僧兵)이 이 범종을 빼앗고 엔랴쿠지로 가져가서 울렸더니 범종이 돌아가고 싶다는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랬더니 벤케이가 그렇게 미이데라에 돌아가고 싶냐고 분노해 범종을 골짜기 밑에 내던졌다고 한다.

전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전(寺傳)엔 이 범종이 한때 엔랴쿠지에 의해 빼앗긴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범종에 남아 있는 흠이 아마 그 때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미이데라 고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1602년에 주조된 '오미 핫케이(近江八景)'의 하나인 '미이의 만종(三井の晩鐘)'으로 알려져 있는 범종이다. 오미 핫케이란 중국 소상팔경(瀟湘八景)을 모델로 비와호 남쪽의 승경지를 뽑은 것이다.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한 이 범종이 교토의 뵤도인(平等院), 진고지(神護寺) 범종과 함께 일본 삼대 우수한 범종으로 꼽힌다. 미이데라에는 또 비천 모습을 부조(浮彫)한 고려 시대의 아름다운 범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시야마데라 규회석과 다보의 모습. 규회석은 열에 의해 석회암이 변성된 것으로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시야마데라(石山寺)

비와호 남쪽에 위치하는 이시야마데라도 역시 '오미 핫케이'로, '이시야마의 추월(秋月)', '세타(瀨田, 이시야마데라 부근의 지명)의 석조(夕照)'가 유명하다.

이시야마데라는 사찰 이름이 표하는 대로 특색이 있는 이시(石)가 인상적이다. 경내에 들어와 본당이나 다보탑(多寶塔)을 잇는 계단을 올라가면 큰 기암(奇岩)이 눈에 든다. 규회석(珪灰石)이라고 하는 그 기암이 화강암 등의 열 작용으로 인해서 석회암이 변성된 것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시야마데라는 나라 하세데라 기사에서 소개한 사이고쿠33쇼순례(西國三十三所巡禮)의 하나로, 관음 신앙의 도량으로 민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시야마데라는 8세기 중반에 도다이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관사(官寺)로 창건된 사찰이다. 사찰 연기는 사찰 에마키(두루마리 그림)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도다이지 대불을 만드는데 방대한 양의 황금이 필요했다. 칙명을 받은 로벤(良弁) 스님이 나라 산속에서 황금 발견을 기원했더니 꿈에 신불이 나타나 '오미의 세타에 있는 산이 영지이니 거기서 기원하면 황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오미에 간 로벤 스님이 바위 위에 관음상을 안치하고, 암자도 만들고 매일 기원했다. 그랬더니 동북 지방에서 황금이 발견되어 덕분에 대불이 완성되었다. 그 후 바위 위에 있는 관음상을 본존으로 하는 사찰이 창건되어, 그곳의 외관으로 사찰 이름이 이시야마데라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도다이지를 건립하는 기관에 속하는 조이시야마인쇼(造石山院所)라는 기관이 있어 이시야마데라 당우는 이 기관을 통해서 건립되었다. 이 기관이 또 비와호 주변에서 벌채된 목재를 수운으로 도다이지에 운반하는 일을 관리했었다. 도다이지와 대불 건립이란 대사업의 배경으로 이시야마데라가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 관사로서의 성격이 점점 약해져 진언 밀교 교학의 사찰이란 성격이 강해졌다. 또 관음신앙 사찰로서 인기가 높아져 황족, 귀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참배했다.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은 편한 곳에 위치하는 유리한 조건도 있어 이시야마데라는 기요미즈데라와 함께 많은 사람이 참배하는 관음신앙의 인기 사찰이 되었다. 여성 참배객도 많아 헤이안 문학 여성 작가들도 이시야마데라를 찾아갔다. 특히 유명한 작가는 궁정을 무대로 지어진 장편 소설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저자인 무라사키시키부(紫式部)이다. 본당 일부분에 그가 소설을 집필했다고 전하는 방이 있다.

본당은 11세기에 대화재로 소실되었지만 10수년 후에 재건된 것이고, 그것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본당에 붙어 있는 예당(禮堂)은 17세기 초에 개축된 것이다. 이시야마데라 본당은 기요미즈데라 본당, 하세데라 본당과 마찬가지로 산의 경사면에 기대어 짓는 건축 양식이며 많은 기둥이 본당을 받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요미즈데라, 하세데라보다 더 오래된 양식을 갖고 있는 귀중한 것이다.

이시야마데라는 무가(武家)와의 깊은 관계도 있었다. 1194년에 건립된 국보 다보탑은 가마쿠라 막부의 창업자이자 초대 장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가 기진한 것이라고 전한다. 높이 16.66m, 하층이 사각형 상층이 원형으로, 균형을 잡은 우아한 탑이다. 하층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불사인 가이케이(快慶)가 제작한 대일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봄에는 매화, 벚꽃, 모란, 여름엔 꽃창포, 수국, 가을에는 단풍 등 자연의 미가 계절마다 사찰 모습을 더 매력있게 보여준다. 특히 400그루 이상이 되는 매화나무가 알려져 있어 방문객이 이시야마데라에서 매화향기를 맡으면서 봄의 도래를 느낄 수 있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미이데라 · 이시야마데라 답사 안내



미이데라, 이시야마데라는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 미이데라는 게이한 미이데라역에서, 이시야마데라는 게이한 이시야마데라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이다. 미이데라역에서 미이데라까지는 비와호 소수(疎水)를 따라 걷는데 봄이 되면 벚꽃이 정말 아름답다. 두 사찰 모두 산의 경사면에 있어 경내 답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야 된다. 그 만큼 조망이 좋다는 말이다. 미이데라도 또한 사이고쿠33쇼 순례의 하나이다. 관음당에 안치되는 본존 관음상이 33년에 한 번밖에 공개되지 않는 비불(秘佛)이다. 관음당이 있는 곳이 조망이 아주 좋고 비와호가 보인다. 도래인과의 인연도 느낄 수 있다. 오쓰 시청 북쪽에 미이데라에 속하는 시라기젠신도(新羅善神堂 별명 시라기신사)가 있다. 시라기(=신라)신사는 일본 전국에 있다. 지난 회에 소개했듯이 일본에서 백제가 붙어 있는 고유명사가 있고, 또 고려가 붙어 있는 고유명사도 있어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이런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흩어진다는 것



창밖은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중이다. 낙엽을 날리며 나무들이 흩어지고, 나무를 줄여서 숲이 흩어지고, 무거운 구름을 뿌리며 하늘이 흩어지고, 차가운 바람을 던지며 단단하던 새벽이 흩어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쯤 저 가을처럼 흩어질 수 있을까. 그림자 한 쪽이라도 털어내고 흩어질 수 있을까.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㉒ 아기 스님의 신통력

부처님 법 앞에서 외도들은 결국…

8만 4천의 절과 8만 4천의 보탑을 세운 아쇼카왕은, 삼보만 받드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자 외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왕님은 머리 깎은 사문만 돌보신다.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 견딜 수 없다."

불평을 하던 외도 5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 우두머리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두머리는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대왕의 궁궐로 쳐들어갑시다!"

우두머리가 앞장을 서자 외도 무리 4백 99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우두머리가 주문을 외우자 대자재천의 천신(天神)인 마혜수라(摩醯首羅)의 모습이 되고, 몇 가지 신통력이 생겼습니다.

이레가 되는 날 마혜수라로 몸을 바꾼 우두머리는 허공을 날아서 궁궐 문 앞에 내렸습니다. 나머지 외도들은 걸어서 우두머리를 뒤따랐습니다.

"나는 마혜수라요. 우리는 꼭대기 하늘나라 대자재천에서 왔소. 대왕을 보고 따져야겠소. 왜 부처의 가르침만 받드시오?"

천신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거느리고 들이닥치자 아쇼카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 5백 명을 자리에 앉힌 다음 푸짐하게 음식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가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소. 사문들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요리를 내어오시오.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을 거요."

잘 차린 궁중요리를 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배가 고픈 참이라, 요리가 탐이 났지만 왕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늘 손님을 맞을 줄 몰랐지요. 준비한 것이 이것뿐입니다."

아쇼카왕은 쩔쩔매는 척하면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먹으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심부름꾼 한 사람을 몰래 불러서 일렀습니다.

"가까운 절, 계두말사(鷄頭末寺)에 가서 큰스님께 여쭈어라. 천신 마혜수라라라는 사람이 무리를 거느리고 왔는데 겉모습은 사람 같으나, 행동으로 봐서 나찰이것 같다. 이들을 달래어 보낼 만한 스님 한 분만."

그런데 심부름꾼이 모시고 온 스님은 일곱 살 아기, 사미 스님이었습니다. 이 사미 스님이어야 나찰을 달래어 보낼 수 있다며 큰스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스님이 들어서자 외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꼬마 중은 웬 사람이요?" 그 소리를 들은 체도 않고 사미는, 아쇼카 왕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자재천에서 온 마혜수라라고요? 아닙니다. 외도들이 가장을 하고 온 거예요. 저 마혜수라차림 외도가 우두머리지요. 대왕께, 어째서 외도를 돕지 않느냐며 따지러 온 것이예요. 오늘 저 5백을 부처님 법으로 교화시키겠습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사미는 외도들이 먹지 않겠다면서 내놓은 5백



그림 · 강병호

밥상 앞에 가서 밥 한 상을 휘딱 먹었습니다. "대왕님, 배가 차지 않네요. 더 먹어야겠습니다."

사미 스님은 밥 다섯 상을 그릇 채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외도들이 놀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미 스님은 외도들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 사람들이 못 먹겠다며 내놓은 궁중요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서 다행입니다. 배가 차지 않네요. 다섯 상을 더 먹어야겠습니다."

사미 스님은 다시 다섯 상의 밥을, 그릇 채 입에다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살 사미의 작은 배에 밥, 열한 상이 들어갔지만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외도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아쇼카왕도 궁중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를 쓰다듬더니 사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차지 않네요, 여든 아홉 상을 더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1백 상이지요."

말을 마치자 사미 스님은 그 여든 아홉 상의 밥을, 밥상 채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더욱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미는 여든 아홉 상 궁중요리를 밥상째 휘딱 삼키고 나더니 또 왕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차지 않네요. 남은 4백 상을 마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궁중요리 5백 상을 모두 삼켰지만 사미 스님의 배가 불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왕님. 이 외도들을 데리고 가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이 사미가 모시고 가는 것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사미는 5백 명 외도를 하나씩 붙잡아서, 그 5백 명을 모조리 입에다 넣는 것이었습니다. 사미 스님의 배는 조금도 부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궁중 사람 중에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미는 준비해 온 조그만 약을 먹여 이들을 고쳐 놓고 훌쩍 계두말사로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찌 되는 것일까?"

아쇼카왕이 어리등절해하며 사미를 따라 계두말사로 수레를 몰았습니다. 절에 도착한 사미는 입에서 5백 명 외도를 꺼내었습니다. 그 5백 명이 모조리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은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4백 여든아홉 상의 궁중요리를 밥상 째 꺼냈습니다. 열 상의 궁중요리는 그릇에 담긴 것을 꺼냈습니다. 궁중요리 4백 아흔아홉 상이 갖추어졌습니다. 사미가 먹은 것은 5백 상 중에서 한 상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절 공양을 한 상만 차려 오세요."

절에서 차린 한 상은 외도 우두머리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식지 않은 궁중요리였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외도들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일곱 살 아기 스님을 따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쇼카왕이 아기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원주림(法苑珠林)28권〉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1년의 결실인 소백한 용두리 호두는
농부의 정성과 청정자연을 머금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소백산 고랭지의 청복 예찬 용두리는
품질과 맛 좋은 호두가 내기로 유명하여 옛부터 호두골 이라 불렸습니다.

소백산 용두리 신품종 호두는 알이 크고 속살이 실하며 깨기가 쉽습니다.
토종호두보다 인기 많고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간혹 거뭇한 호두알은 겉껍질 색이 착색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향긋한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
수차례의 선별작업으로 속이 비거나 기준보다 작은 호두알은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기준 이하의 호두가 있을까봐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Walnut

호두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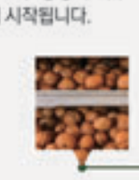
건과일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기능
동맥경화, 피부노화방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60~70% 함유
심장질환 예방, **항암**, **당뇨**에 효과
하루 **7알** 권장
두뇌 **노화 예방**, **뼈 건강**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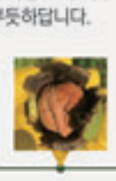
호두 이야기


용두리 호두 농장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튼튼하게 자란 호두나무를 보면 뿌듯하답니다.


9월에 호두가 영글기 시작하면 호두를 털기 시작합니다. 호두둑! 떨어지는 호두비에 머리를 안 맞으려면 잘 피해야 한답니다.


건조까지 마친 소백산 용두리 호두는 선별작업을 거칩니다.
속이 비고 깨진 호두알을 골라 낸 후 드시게 편하게 포장을 한답니다.


벌어지지 않은 호두알은 숙성 후 탈피기에서 청피를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100% 국산 무농약
제초제 쓰지 않은 청정호두

1 kg 28,000원
(택배비 3,000원 별도)
2 kg 56,000원
(택배비 무료)

■ 주문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 입 금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야생화(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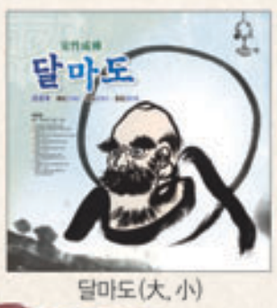

행복한 세상(大, 小)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반 야 용 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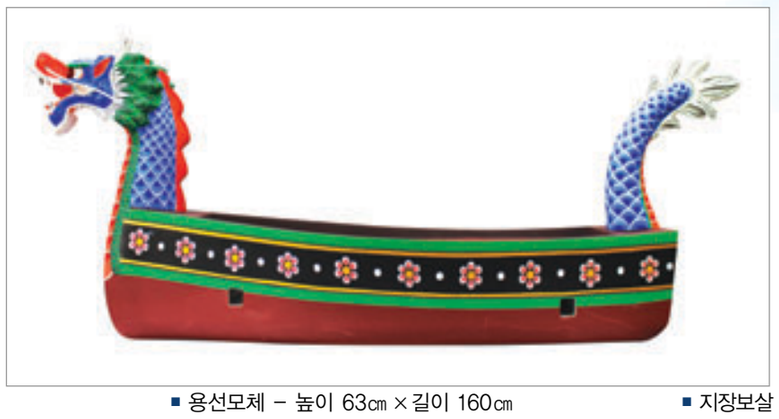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